

●제 1 편

역사와 문화의 향기

1. 고장을 빛낸 사람

1 - 1. 강 감 찬 (姜邯贊 / 龜州大捷의 名將)

강감찬은 정종(定宗) 3년(948)에
금주(衿州, 始興)에서 토호(土豪)의 아
들로 태어나니 그의 아버지는 삼한
벽상공신궁진(三韓壁上功臣弓珍)이었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은천(殷川)
이라 하였다. 그의 일가(一家)가 금
주에 정주(定住)하게 된 것은 5대
조(5代祖) 여청(餘請) 때의 일로서
여청은 신라(新羅)로 부터 왔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씨 집안이 금주에서
토호로 성장한 것은 강감찬의 아버
지 궁진(弓珍) 때의 일이다.

궁진은 태조 왕건의 부하가 되어 훈공을 세움으로써 삼한벽상공신이 되
었으니 아마도 금주에 근거한 지방 호족 세력의 하나였던 궁진이 왕건
에 투신하여 그의 부장(副將)이 되고 훈공(勳功)을 세웠던 것으로 짐작
이 된다.

강감찬의 성장과정에 대하여서는 전해오는 바가 거의 없으나 부유한 명
문(名門)에서 태어난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智略)이 뛰어났다 한다.

강감찬은 성종(成宗) 2년(983)에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고 이어서 왕
의 임현복시(臨軒覆試)에서 장원급제(狀元及第)를 하였다.

당시 고려에서는 과거(科舉)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한 것은 과거를 통하여 관인(官人)으로 출세



하는 일이었다. 강감찬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34세 때의 일이었으나 여러 관직(官職)을 거쳐 현종(顯宗)이 즉위할 때에는 이미 예부시랑(禮部侍郎)이란 벼슬에 올라 있었다.

고려가 거란(契丹)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미 태조때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광종(光宗) 11년(960)에 중원(中原)에서 오대(五代)의 혼란을 수습한 송(宋)나라가 등장함으로써 고려와 거란, 송 사이에 새로운 국제관계가 성립되게 되었다.

즉 신흥국가 송이 거란과 남서(南西)로 대립하여 충돌하고 있을 때 고려가 거란의 적대국인 송과 교聘(交聘)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거란(태종이 후진(後晉)을 멸한 후 국호를 「대요(大遼),라고 고쳤음)을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뜨렸으니, 송을 정복하여 중원을 호령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는 거란이 우선 고려에 침략 행위를 강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성종 12년(993)의 제1차 거란의 침입이다.

소손녕(蕭遜寧)을 도통(都統)으로 하는 거란군(契丹軍)의 침입에 고려에서는 화전(和戰) 양면 작전을 세워 중군사 서희(中軍使 徐熙)가 안무진(安武鎮 =安州)에서 적장 소손녕과 담판하고 강화하였다.

화평(和平)이 성립하자 고려에서는 자연히 송과 단교하게 되고 이후에는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다.

그러다가 목종(穆宗)이 강조(康兆)에게 폐위 살해되고 현종(顯宗)이 옹립되는 정변(政變)이 발생하여 두 나라의 관계는 돌변하고 말았다.

고려의 정변이 거란에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송과 은밀히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함경도 지방의 여진(女眞)에 손을 대고 있는 고려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거란의 성종(聖宗)이 정변을 구실삼아 스스로 「의군천병(義軍天兵)」이라 자칭하는 40만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왔다.

고려의 조정에서는 강조(康兆)를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로 임명하여 30만군으로 통주(通川, 宣川)에 나아가 싸우게 하였으나 우세한 적군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강조는 거란의 성종 앞에서 그의 신하가 되라는 권고를 뿐리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통주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서북(西北) 최후의 보루인 서경(西京)으로 침입하여 왔다. 그리하여 현종 원년(1010) 12월 28일에 개경(開京)에서 어전 회의(御前會議)가 열렸는데, 조신(朝臣)들의 대부분은 패전이라는 현실 앞에 차라리 항복하여 사직(社稷)의 안전이라도 도모하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유독 예부시랑(禮部侍郎) 강감찬만이 이를 반대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강조에게 있고 비록 형세가 긴박하기는 하나 크게 걱정할 바는 못됩니다.

적의 병세(兵勢)가 너무 강대하여 중과부적(衆寡不敵) 이기는 하지만 잠시 그들의 예봉(銳鋒)을 피하여 서서히 부흥을 도모한다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니, 원컨데 폐하(陛下)께서는 남쪽으로 난을 피하였다가 적극 항전을 폐하십시오”라고 말하여 회의의 분위기를 일변 시켰다.

그리하여 일단 항복으로 기울어졌던 어전 회의(御前會議)는 강감찬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감연히 항전 구국(抗戰救國)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날밤 왕(王)은 남쪽으로 몽진(蒙塵)의 길을 떠나 나주(羅州)에 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현종(顯宗)은 비록 항전으로 국가의 대책(大策)을 결정하였으나 화평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난길 양주(楊州)에서 사신을 거란의 군영에 보내어 화의(和誼)를 청하였다.

이 때 이미 개경(開京)은 함락되고 각지에서 거란인들의 만행과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고, 화평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하공진(河拱辰) 등이 노력하여 국왕(國王)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겨우 강화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국왕의 친조란 우리 나라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으나 원래 고려는 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는 없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란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였다.

여하간 화의가 성립됨으로써 일단 위급한 난국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만약에 강감찬의 건의를 쫓지 않고 중신(衆臣)들의 의견대로 거란의 군문(軍門)에 굴복하였다면 후일 현종이 이때를 회고하여 “아마도 고려는 미개한 유목민족인 거란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고려가 항복이란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란에 예속 되는 것을 막아준 사람이 바로 강감찬이었으니”라고 말한바와 같이 강감찬은 거란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고려의 문화와 전통을 수호한 공훈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란의 침략군이 철수하자 현종 2년(1011)에 강감찬은 국자제주(國子祭酒)로 전임되었다가 중추사·상서리부(中樞使·尚書吏部) 등을 거쳐 현종 9년(1018)에는 서경유수·내사시랑평장사(西京留守·內司侍郎平章事)가 되었다.

이 때 현종이 사령장을 손수 글로 써서 “경술년(庚戌年)에 거란이 한강 까지 깊이 쳐들어 왔을 때 강공(姜公)의 전책(建策)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나라를 들어 모두 오랑캐의 규제를 받는 바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강감찬을 크게 찬양하였던 것이다.

강화가 성립한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친조(親朝)문제로 사절이 오고 갔으니, 현종 2년(1011) 4월에 거란에서는 현종의 친조를 요구하여 왔고, 6월에 고려에서는 국왕이 병환중에 있어 나서지 못함을 통고하였다.

그러자 거란에서는 앞서 고려가 영유한 강동(江東) 6주(州)를 돌려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강동 6주를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동 6주에 공고한 성곽(城郭)을 구축하여 군사 시설을 강화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으니, 현종 4년(1013) 3월에는 거란의 야율행평(耶律行平)이 와서 고려가 강동 6주를 영유한 것을 헐책하기도 하였다.

이 후에도 거란의 강동 6주 환부 요구는 그치지 않았으나 고려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과의 통교(通交)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거란군의 강동 6주 침입이 잦았고 거란의 침입군은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격퇴 당하였다.

현종의 친조가 거부되고 거기에도다가 강동 6주의 반환마저 거절당한 거란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고려가 송과 통교하므로써 군사적으로 거란을 포위하는 태세를 취하기에 이르자 양국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강감찬이 서경유수로 임명된 당시(현종 9년(1018))는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위기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거란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서경(西京)은 방어의 총본영(總本營)이 될 곳이다.

그리고 서경유수는 비록 문관직(文官職)이기는 하나 일단 유사시에는 서북면(西北面)에 배치된 군대를 통솔하는 병마지휘권(兵馬指揮權)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란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전운(戰雲)이 감도는 시기에 강감찬이 서경유수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은 아니었다.

강감찬이 서경유수로 부임한 같은 해 12월에 거란의 제3차 침입이 전개되었다. 소배압(蕭排押)을 대장으로 한 10만의 거란군이 쳐들어 오자 미리 거란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고려에서는 강감찬을 서북면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로써 상원수(上元帥)가 되게 하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이에 대비하게 하였다.

강감찬은 처음 안주(安州)에 본영(本營)을 두고 20만의 대군을 전선에 동원 배치하였다. 그리고 홍화진(興化鎮, 義州)에 나아가 기병(騎兵) 1만 2천 명을 선발하여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소배암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복병(伏兵)으로 하여금 일거에 무찌르게 하니, 소배암이 대挫하여 홍화진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길을 찾아 개경(開京)으로 직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감찬은 부원수 강민첨(姜民瞻)으로 하여금 적을 추격하게 하여 자주(慈州, 慈山)에서 그를 무찔렀고, 마탄(馬灘, 大同江의 美林津)에서는 시랑 조원(趙元)이 또한 적을 무찔러 1만여명을 죽였다.

이와 같이 강감찬은 홍화진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전(緒戰)을 장식하였고 적의 예봉을 꺾어 버렸던 것이다.

소배암은 서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현종 10년(1019) 정월(正月)에는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新恩, 新溪)에 까지 이르렀는데 강감찬은 병조판관 김종현(兵曹判官, 金宗鉉)에게 군사 1만명을 주어 개경을 수호(守護)하게 하였고,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도 군사 3,300명을 파견하여 이를 돋게 하였다.

이 때 현종은 성(城) 밖의 민호(民戶)를 성내로 불러들이고 청야작전(淸野作戰)을 써서 대비하였다. 이에 소배암은 사람을 보내 고려에 회군(回軍)을 고하게 하면서 몰래 기병 300기(騎)를 풀어 금교역(金郊驛, 金川)에 이르렀는데 고려군의 야습(夜襲)으로 대挫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란군은 개경 공격을 단념하고 하는 수 없이 잔군을 이끌고 철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란군의 뒤로를 지키고 있던 강감찬은 패주하는 적을 연주(連州, 价川) 위주(渭州, 寧遠) 등지에서 기습하여 500여명을 죽였다.

흔란에 빠진 적군이 귀주(龜州)를 통과할 때에 강감찬은 이를 맞아 대치하였는데, 마침 김종현이 거느린 군사가 도착하고 풍우(風雨)가 남쪽에

서 불어와 정기(旌旗)가 북쪽을 가리켜 나부끼자 좋은 징조라하여 강감찬은 전군을 몰아 격전 분투하여 적을 무찔렀다.

다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무찌르니 석천(石川)을 지나 반령(盤嶺)에 이르기까지 적의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노획한 인마(人馬)와 병기 등 고려의 전리품(戰利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다.

이것이 역사상에 빛나는 귀주의 대첩(龜州의 大捷)으로서 생활한 거란병은 수천에 불과하였다고 하며 소배암은 석천에서 다급한 나머지 갑옷과 병장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요사(遼史)」에 기록되어 있다.

이 패보에 접한 거란의 성종(聖宗)은 사람을 보내 소배암을 질책하면서 「너는 적을 경시하고 적중에 길이 들어가 오늘의 패전을 가져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다시 보겠는가, 내 마땅히 네 얼굴 가죽을 벗긴 후 죽이리라 하고 대노하였다 한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한 쾌사(快事)로서 당시 조야(朝野)의 인심을 얼마나 통쾌하게 하였던지 강감찬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현종이 친히 영파역(迎波驛, 義興驛)에 출영(出迎)하여 채봉(綵棚)을 맷고 주악속에 연회를 베풀어 장군을 위로하면서 강감찬의 머리에 금화팔기(金花八技)를 꽂아 주고 좌수(左手)로 그의 손을 잡고 우수(右手)로 출잔을 들어 위로하기를 마지아니하였다라는 것이며, 이에 강감찬이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다고 하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는가.

그리고 현종은 영파(迎波)의 지명(地名)을 의홍(義興)이라 고치고 역리(駅吏)에게도 주현리(州縣吏)와 같은 판대(冠帶)를 허락하였으며, 개경에 귀환하자 다시 명복전(明福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3군(軍)을 크게 위로하였다. 그뒤 거란은 감히 다시 고려에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종 10년(1019)에는 양국에 화약이 성립되어 다시 국교가 회복되었다.

귀주대첩(龜州大捷)의 개선장군 강감찬은 이미 7순(旬)을 넘은 고령이

었다. 그는 거란군을 격퇴함으로써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할 사명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현종 10년(1919) 4월에 표(表)를 올려 연노(年老) 하였음을 주상하고 은퇴하기를 청하였으나, 현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하면서 3일 1조(三日一朝)를 명하였고, 11월에는 「검교태위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천수현개국남(檢校太尉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天水縣開國男)」이라는 작위(爵位)를 주고 식읍 300호(食邑 300戶)를 봉(封)하였으며, 12월에는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이란 칭호를 주었다.

문하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內司門下平章事)는 그가 가지고 있던 벼슬이고 검교태위(檢校太尉)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정일품(正一品)의 벼슬이며 개국남(開國男)은 작위(爵位)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 해인 현종 11년(1020) 6월에 다시 표를 올려 은퇴할 것을 청하여 허락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그의 벼슬은 특진검교태전(特進檢校太傅)을 더하고 작위는 천수현개국자(天水縣開國子)로 높여졌으며 식읍도 500호로 늘었다.

현종 21년(1030) 5월에는 다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가(加)하고, 22년(1031) 6월에는 검교태사사시중천수현개국후(檢校太師侍中天水縣開國候)에 식읍 1,000호로 특진(特進) 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위계(位階)와 영예(榮譽)가 인신(人臣)으로 오른지 얼마 안되어 덕종(德宗) (1031) 8월에 84세로 세상을 떠나니 조정에서는 3일간 칠조(輶朝)하고 백관(百官)에게 회장(會葬)을 명(命) 하여 장례(葬禮)를 후회 지내 주었다. 그의 시호(謚號)는 「인현(仁憲)」이라 하였으며 선군(先君) 현종(顯宗)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되었다

그의 탄생지 낙성대는 전에는 시흥군 관내였으나 지금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며 성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2 김경남 (金京南)

고장을 빛낸 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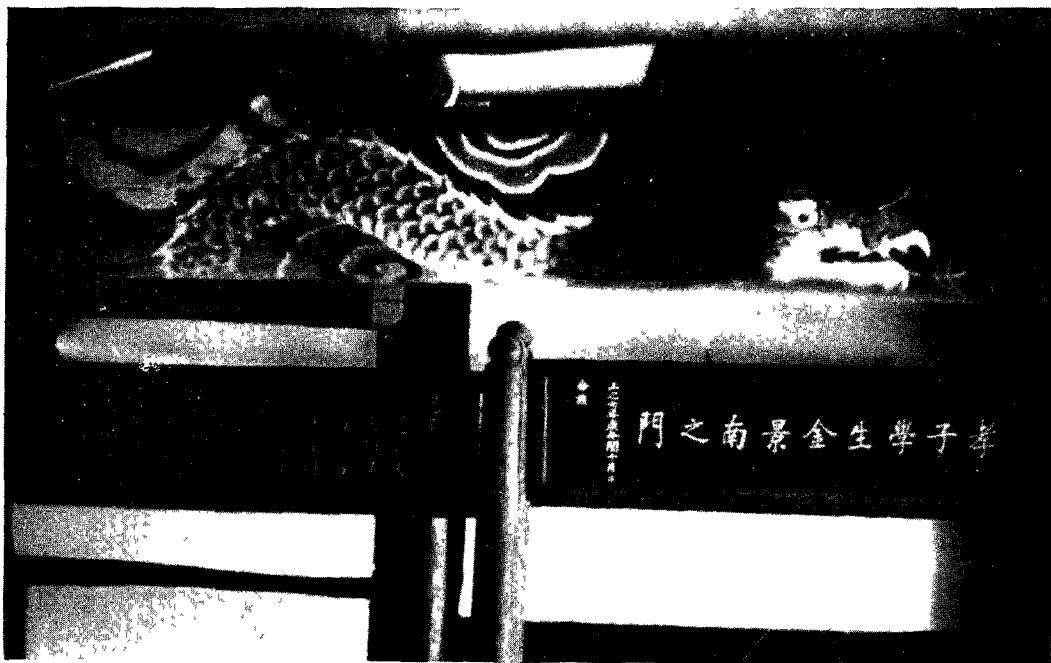
- 움막을 짓고 3년을 한결같이, 호랑이도 감동되어 같이지켜 -



김경남은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를 한천(寒泉)이라 한다. 그는 충의공(忠毅公) 김문기의 손자 탄옹(炭翁)의 아들이다.

평소 그의 모친이 버섯국을 좋아 하였으므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는 지성으로 산간을 헤매면서 버섯을 채집하여 모친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받들었다.

한번은 집 뒤편에 있는 언덕 비탈에 뜻밖에 잘 자란 버섯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채취하여 모친의 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그후 每日같이 가보면 神奇하게도 如前히 叢生 하고 있어 이를 採取하여 계속 無難하게 반찬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루는 가보니 버섯은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고 또 바로 그날 밤에 母親이 世上을 떠나니 모두들 奇異하게 여겼다. 그 후 이 곳을 洞里사람들은 버섯들이라 부르고 버섯을 孝子 버섯이라 이름하였는데 後孫들이 이곳에 碑를 새겨 異蹟을 紀念하였다.

그는 母親喪을 치른후 盧幕을 짓고 3年을 한결같이 侍墓하였는데 밤이면 호랑이가 찾아와서 그를 守護하듯 밤을 세우면서 날이 밝으면 떠나니 이 또한 3年을 하루같이 꾸준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엔 作者未詳의 採菌歌 一篇이 傳해 오고 있다.

1－3 이원익 (李元翼／乱世의 忠臣 梧里政丞)



이원익은 명종(明宗) 3년(1548)에 금양(衿陽, 始興郡)에서 함천부수 이억대(咸川副守 李億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태종(太宗)의 왕자(王子) 익영군(益寧郡) 치(移)이니 왕실(王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원익은 자(字)를 공려(公勵) 호(號)를 오리(梧里)라 하였다.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보다도 오리대감·오리정승(梧里大監·梧里政丞) 또는 키작은 대감(大監)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천성이 단조롭고 맷결같이 곧아서 자기의 할일만 할뿐 남과 잘 어울린다거나 자기를 남에게 알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원익은 17세 되던 명종 19년(1564)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21세 되던 선조(宣祖) 2년(1569)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초임(初任)으로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된 후 저작(著作) 등을 역임하고 선조 6년(1573)에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

이 해 성절사 권덕여(聖節使 權德與)를 따라 질정관(質正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후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내고 선조 7년에는 예조(禮曹)와 형조(刑曹)의 좌랑(佐郎)을 거쳐 황해도사(黃海都事)가 되었다. 때마침 이이(李珥)가 황해감사(黃海監司)로 부임하였는데, 이원익은 그 밑에서 공로를 쌓아 크게 신임을 얻었다.

이이(李珥)가 서울로 전임되자 이원익은 그의 추천으로 선조 9년(1576)에 정언(正言)에 올랐다. 다음 해에는 지평(持平)등을 거쳐 사간(司諫)에 오르고, 선조 11년에는 육당(玉堂)에 들어가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선조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선조 15년(1582)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선조 16년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는데, 이때 도승지(都承旨)인 박근원(朴謹元)과 영의정(領議政) 박순(朴淳)이 불화하여 유소(儒疏)를 배격한 사건으로 이원익은 파직되고 박근원(朴謹元)은 강계(江界)로 유배되었다. 즉 유소(儒疏)를 배격하자 이것을 본 왕자사부 하락(王子師傅 河洛)은 승정원(承政院)이 왕의 청명(聰明)을 흐리게 한다고 상소하였고 이 상소를 본 선조가 대노하여 문죄(問罪)하려고 할 때에 승지(承旨)들은 박근원과 박순의 불화를 사실로 고하여 화(禍)를 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원익은 이에 반대하여 “죄를 동료에게 돌려 혼자만 화를 면하려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이원익은 도승지 박근원의 죄에 연류되어 파직되고 말았던 것이다.

선조 20년(1587)에 이르러 5년만에 사면되어 안주목사(安州牧使)로 기용되었다. 이원익이 안주목사가 되자 종래 4 번제로 1년에 3개월씩 복

무하던 군병(軍兵)의 방수(防守) 제도를 6 번째로 고쳐 백성들에게 편의를 주었고, 누에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안주지방에 그것을 장려하여 크게 보급되게 하였다.

그후 이 지방에서는 누에치기가 크게 번창하였으며 안주지방에서는 이 원익을 이공상(李公桑) (이원익이 시작한 뽕이라는 뜻)이라 부르는 말까지 생겼다 한다. 그는 안주목사로서의 치적(治績) 때문에 선조 24년(1591)에는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고, 이어서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호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戶曹判書·禮曹判書·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선조 25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생하여 이일(李鎰)이 상주(尚州)에서 패하고, 신립(申砬) 또한 충주(忠州)에서 패하매 수도(首都)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충주(忠州)의 패보(敗報)가 조정에 이르자 선조는 종실·제대신(宗室·諸大臣)을 모아 논의한 결과 잠시 평양(平壤)으로 난(亂)을 피하고 명(明)에 구원병을 청하여 수복을 꾀하기로 하는 한편, 임해군(臨海君)을 함경도(咸鏡道)로 순화군(順和君)을 강원도(江原道)로 보내어 근왕병(勤王兵)을 모으도록 하였다.

이 때 이원익은 이조판서겸 평안도도순무사(平安道都巡撫使)가 되어 선조의 서행(西辛) 보다도 먼저 평양으로 가서 향언백(向彦伯) 등과 평양을 지켰다.

그런데, 사태가 불리하여 선조가 평양에서 다시 의주(義州)로 북행(北行)하자 이원익은 윤두수·김명원(尹斗壽·金明元)과 함께 평양을 지키려 하였으나, 결국 평양도 함락되어 이원익은 안주(安州)로 후퇴하여 흘어진 군병을 모아 대동강 이북을 지켰다.

명나라의 원병이 도착하자 그는 이여송(李如松)을 따라 평양을 수복하였고, 왜구들이 남으로 퇴각하여 선조가 환도(還都)한 후에도 이원익은 평

양에 남아 군사 1만여명을 훈련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선조 28년(1595)에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도도체찰사·영원수부사(道都体察使·領元帥府事)를 겸하여 작전(作戰)의 대임(大任)을 맡았으며 지방을 순시하여 전후 복구에 전력하였다.

이 때 선조는 노령인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만류하였음에도 듣지 않고 성주(星州)에 머무르면서 군기(軍紀)를 바로 잡았는데 어찌나 공정하고 엄격하였던지 령(令)을 어기는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처벌하니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栗)도 명을 어기고 오지 않았다가 파직된 일이 있었다.

선조 29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시작되었을 때 이순신(李舜臣)이 간신들의 시기와 당쟁에 희생되어 투옥되자 이는 국가를 그릇치는 중대한 일이라 하여 이원익은 선조에게 강력하게 항변하기도 하였다.

원균(元均)이 참패한 후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統制使)로 등용한 데에는 이원익의 막후의 노력이 컸으니 이순신은 “군사들로 하여금 죽는 것을 잊게하는 이는 이정승(李政丞)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내가 장수로 봄에 있으므로 참소와 의심이 길을 막는데, 정승께서 내 계획을 높이 평가하여 지금 주사(舟師)가 대강 완쾌된 것은 전부 이정승의 힘이요 내 힘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명군이 다시 내원(來援)하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은 도원수 권율과 함께 휘하에 이덕형, 김체(李德馨, 金暉) 등으로 복군(復軍)을 설치하게 하고 8도(道)에 모병(募兵)하여 명군(明軍)과 함께 왜구들을 격퇴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임진난이 종결된지 수년이 지난 후 선조 37년(1604)에 이르러 난중(亂中)의 공로에 대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있었는데, 이원익은 유성용(柳成龍)·윤두수(尹斗壽) 등과 함께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훈록(勳錄)되고 완

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었다. 영의정이 된 이 원익은 광해군 원년(1608)에 왜란(倭亂)으로 바닥이 드러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임진왜란은 무엇보다도 농토(農土)를 황폐하게 하여 난전(亂前)에 170만 결(萬結)에 이르렀던 전결(田結)이 난후(亂後)에는 실결(實結)이 54만결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租稅) 수입은 격감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원익이 주장하여 종전 특산물로 바쳐오던 공납(貢納)을 미곡(米穀)으로 통일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원래 공납제는 여러가지 불편을 수반하고 있었다. 공물은 국가와 지방의 특산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패하기 쉬운 공물을 먼 지방에서 수송하기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방납(防納)이 행해지고 각종 협잡이 따랐기 때문에 농민들이 유망(流亡)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대동법은 우선 경기도에 시행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인조(仁祖) 때에는 강원도에 실시되고, 효종(孝宗) 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실시하였으며,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니 미곡으로 통일한 공물(貢物)을 「대동미(大同米)」라 하였고 이것을 관장하던 기관을 「선혜청(宣惠廳)」이라 하였다.

영의정이 된 후 이원익은 수차 사의를 표하였으나 허락되지 않던 중, 광해군(光海君) 7년(1615)에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하다가 홍천(洪川)으로 유배되었다.

광해군은 당쟁(党爭)에 휩쓸려 이미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 북인(北人)들에 위압되어 임해군(臨海君)을 죽이고 김제남(金悌男)이 옥사(獄事)를 일으켜 영창대군(永昌大君)까지 죽였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 유

폐하려 하였다.

이 때 이원익은 죽음을 무릅쓰고 혜모론을 극력 반대하였는데, 광해군은 「내가 효도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무근한 말을 하여 부모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고 대노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선왕(先王)으로부터의 이원익에 대한 높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홍천(洪川)으로 귀양보냈던 것이다.

이 때 관동지방(關東地方)에는 한발이 심했는데 이원익이 귀양가자마자 이 지방에 큰 비가 쏟아져 한발을 면했는데 이지방 사람들은 이 비를 상공우(相公雨)라 불렀다 하며 지금도 가끔 끝에 오는 비를 상공우라 한다.

이원익이 홍천으로 귀양갔을 때 역시 북인에게 몰려 신흠(申懃)은 춘천(春川)에 귀양갔고, 한준겸(韓凌謙)은 서호(西湖)로 귀양갔으므로 이를 「삼찬(三竄)」이라고 불렀다.

이원익은 광해군 11년(1619)에 풀려나 여주(驪州)로 옮겼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이 물려나고 북인(北人)들이 몰락하자 남인(南人)인 이원익이 다시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때 서울의 시민들은 상공(相公)이 돌아왔다고 크게 축하하여 마지 않았다 한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재상(宰相)이었는가를 이로써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자 인목대비(仁穆大妃)가 광해군의 처형을 명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다.

이원익이 또다시 영의정이 됨에 광해조(光海朝)에서 권세를 부리던 무리들은 생사가 오로지 이원익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쓰기도 하였다.

어느 사람은 그의 첨(妾)을 이원익의 첨실(妾室)에게 보내어 신고 있던

구슬신을 선사하고 목숨을 빌었다. 첨실이 이원익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더니 이원익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에게 이런 물건이 있으니 그 임금이 어찌 망하지 않을 것이며, 첨실이 이런 물건을 지니고 있으니 어찌 그 주인이 죽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인조반정 다음 해에 이괄(李遜)이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평안병사(平安兵使)겸 부원수에 그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원익은 도체찰사(都体察使)로 인조를 공주(公州)로 호종(扈從)하였다.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播遷) 하였는데 이원익은 도체찰사로 왕세자(王世子)를 호종하여 전주(全州)로 난(亂)을 피했다.

이 해 3월에 후금(後金)과 화의(和諧)가 성립되어 인조는 천도(遷都)하였고, 이원익도 왕세자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이원익의 나이는 이미 79세나 되어 연로하였으므로 정사(政事)를 맡을 기력이 없어 이 해 가을에 인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금양(衿陽)으로 내려갔다.

그 후 여러 차례 인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서지 않다가 인조 12년(1634) 1월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87세였다.

이원익이 세상을 떠나자 인조는 크게 애통하여 관구(棺柩)와 상수(喪需) 등을 보내고, 예조낭청(禮曹郎廳)과 경기감사(京畿監司)를 금양으로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였다.

효종(孝宗)은 그에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謚號)를 내리고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기천서원(沂川書院), 충현서원(忠賢書院), 청천사(淸川祠)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과 같은 전란(戰亂)과 당쟁(黨爭) 속에서 세 임금을 섬긴 충신(忠臣) 이었으며 많은 업적을 쌓

은 훌륭한 정치가 였다. 그러나 이원익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그의 업적보다도 오리대감(梧里大監)으로서의 그의 인간됨에 있는 것이다.

이원익은 흔히 그 이름보다도 오리정승(梧里政丞) 이니, 키작은 대감(大監)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전(口傳)에 의하면 이원익의 키가 3척 3촌 이었다 하나 이는 키가 작은 것을 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날 이원익이 한 치쯤 되는 나막신을 신고 관상(觀相)을 보였더니 점장이가 아래 위를 한참 훑어보고 「키가 한치만 작았더라면 오단(五短)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 될 상(相)입니다만…」하였다.

이에 이원익은 신고 있던 나막신을 벗어 보이자 점장이가 갑자기 무릎을 끊고 재상(宰相)감을 이렇게 만나 뵈오니 황송하옵니다」하였다 한다.

이원익의 생활 태도는 지극히 소탈하고 겸소하였다. 그는 오랜 동안 벼슬자리에 있었고 재상자리를 몇 번이나 역임하였으면서도 그가 사는 집은 비바람조차도 가리기 어려운 두어간짜리 오막살이 초가집이었으며 그가 노환이 심중(沈重)하여 누워 있어도 약 한 첨을 쓸 여유도 없었고 끼니조차도 변변히 잊지 못하였다 한다.

그의 집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가 현관(顯官)에 오르기 전에 집을 지으려고 재목을 마련하였는데, 그가 갑자기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르게 되었다.

호조판서는 국가의 재정을 맡아보는 자리이니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받기 쉽다 하여 집짓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후 계속 벼슬길에 있게 되고 재상까지 되니 집을 지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마련해 두었던 재목은 썩고 삭아버리게 되었다 한다.

그가 재상자리에 있을 때, 그의 청렴 겸소한 성품을 잘 아는 임금은 노령의 빈궁(貧窮)을 떡하게 생각하여 비단 금침(衾枕)과 비단 의복을 하

사하였다. 그러나 그가 굳이 사양하는 것을 보고 소육(素褥)과 소의(素衣)를 내려 그의 고집을 가상하게 여겼다 한다.

인조는 가끔 이원익이 지내는 모습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곤궁하게 지내는 것을 들으면 나라의 기둥인 그를 잘 보살피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두어서야 되겠느냐고 꾸지람을 한 일도 여러 차례였으며 약과 양식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와 내시(內侍)를 그의 집에 보내 안부를 알아오게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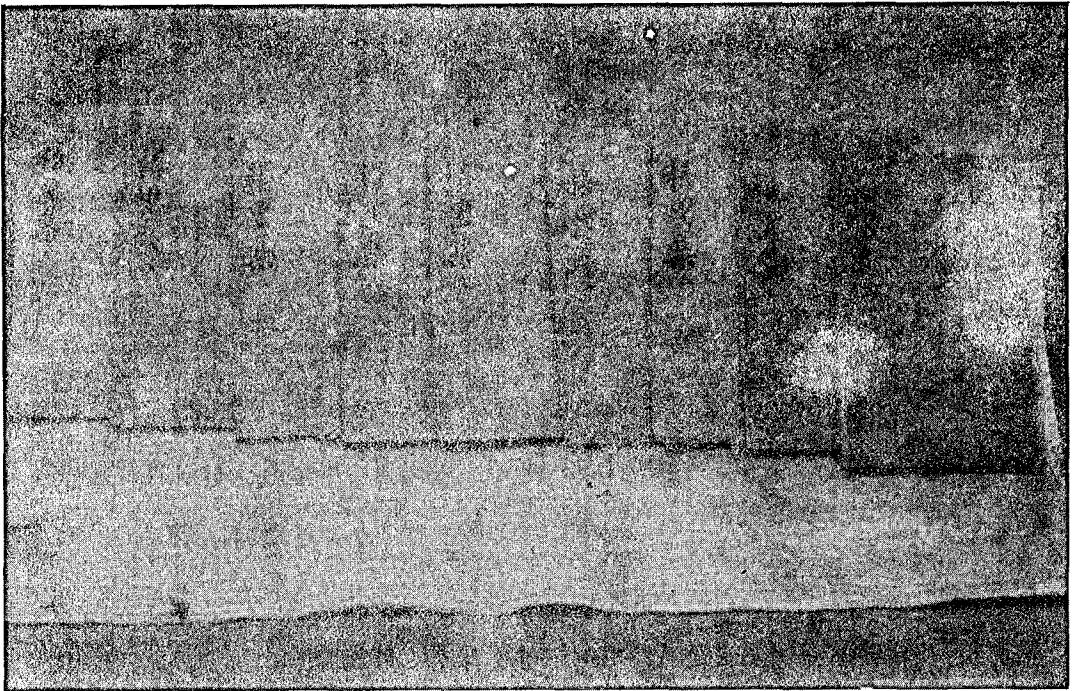
이원익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섬긴 인조의 각별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 이원익이 왕의 부름을 받고 입궐할 때에는 특별히 왕좌(王座) 앞뜰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또 그가 들어올 때에는 내시를 뜰에까지 내려보내 부액(扶腋) 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이원익이 앓고 있을 때 인조는 친히 문병차 그의 집으로 행차하려고 한 일도 있었다. 이원익이 노령에 병이 무거워 여러번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인조는 매양 「대궐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서 조리하면서 국사(國事)를 보살펴 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 하였으며, 「그 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정사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원익은 홍천으로 귀양가 있을 때 순목(順目)이라는 순박하고 성실한 종이 가끔 금양에서 홍천의 적소(謫所)를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어느 날 이원익은 찾아온 순목을 보고 이렇게 웃었다.

「노량(露梁)을 떠날 때에는 봄 빛이 가득하더니 홍천의 골짜기 위엔 여름 구름이 떠 있네, 산(山) 넘고 물 건너 또다시 찾아오니, 네 아비의 어짐을 많이도 닮았구나」

귀양살이의 외로움과 그를 찾아준 순목의 고마움이 서려있다. 이에 대하여 순목은 다음과 같이 화음(和吟) 하였다.



「길 떠날 땐 화창한 봄 날씨였건만, 당도할 땐 한 여름 구름을 봅니다. 행여 고마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 뿐 어찌 아버지의 어짐을 이었다 하십니까」

이원익이 광해군 11년(1619) 5년만에 적소에서 풀려 여주로 옮겼을 때 그 곳 호장(戶長)의 집에 기거하면서 돛자리를 짜서 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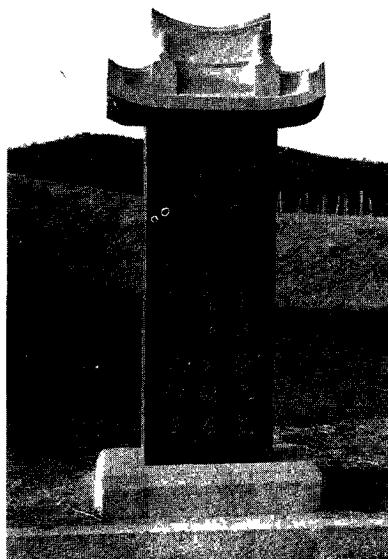
이 때 호장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원익은 몸소 나서서 상예(喪禮)를 치루어 주었다. 뒤에 장현광(張顯光)이 이것을 알고 「영의정이 호장의 아내 치상을 하니 호장의 아내가 영광이로다」하고 그의 소탈한 인격에 감복하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이렇듯 이원익은 가는 곳마다 일화를 남겼고 그의 일화에 접할 때마다 친근감을 갖게하는 것이다.

이원익의 묘는 시흥군 소하읍 소하리(광명시 소하동)에 있는데 쌍묘이며 묘전에는 묘비, 상석, 망주석 및 문석각 2기 장명등이 있다.

1-4 이 익 (李翼) 1681 (숙종 7) ~ 1763 (영조 39)

- 朝鮮朝 실학의 대가 -



이조 영조 때의 남인(南人) 학자로써 자는 자신(子新)이며 호는 성호(星湖)다. 본관은 여주(驪州)로서, 대사헌(大司憲) 하진(夏鎮)의 아들이다. 1705년(숙종 31) 증광과(增廣科)에 합격하였으나 그의 형 이잠(李潛)이 당쟁으로 희생된 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實學)의 대가(大家)가 되었으며, 특히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医藥)·율산(律算)·경사(經史)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조는 그의 명성을 듣고 1727년(영조 3년)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으로 임명했으나 사양하고 저술(著述)에 힘쓰는 한편 서학사상(西學思想)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문략(天門略) 천주실의(天主實義) 주제군징(主制群徵) 칠극(七克) 진도자증(眞道自證)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평생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광주(廣州) 첨성리(瞻星里)에 머물러 학문을 연마하였으나 항상 국가 부흥을 위한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저술하여 실증적(實証的)인 사상을 확립시켰다.

역사 서술의 태도에 있어서도 종래의 방법을 버리고 비판적 고증적(考證的)인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당쟁(黨爭)의 폐단은, 이해(利害)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양반(両班)이 실제적인 실업(實業)에 종사하지 않고 관직을 얻음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직제(職制)에 대해 너무 많은 수의 관리가 배출되므로 자연히 당파싸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는 양반계급의 생업(生業) 종사와 과거제도의 잡다(雜多)를 피하고 관리 승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토지경작(土地耕作)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삼고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를 이상(理想)으로 한 한전법(限田法)의 시행을 제창하였다.

그 후 이익의 사상은 제자 안정복(安鼎福) · 이가환(李家煥) · 이중환(李重煥) 윤동규(尹東奎) 신후답(慎後答) · 권철신(權哲身) 등에 의하여 연구 계승되고 정약용(丁苦鏞)이 집대성(集大成) 하였다.

그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벼슬로 죽은 후 조정에서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하여 생전의 공로를 추모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성호사설(星湖僕說) · 꽝우록(霍憂錄) 성호문집(星湖文集) · 사칠신강(四七新講) 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 · 자복편(自卜篇) · 관물편(觀物篇) 백언해(百諺解) · 해동악부(海東樂府) 등이 있으며 이익 선생의 묘는 화성군 반월면 이리 쪽칭 「능골」 산마루터에 있고 이익선생이 두문불출하여 독서에만 전념하던 곳은 수암면 성포리이다.

이익 선생의 묘역은 약 40평이며 묘제는 평범하여 특징은 없다. 다만 직계 후손이 없어 황량했던 것을 1967년 5월 성호 이익선생추모회에 의해 정화되고 묘비도 건립되었다.

1 - 5 「열여」 밀양박씨와 「효자」세철

- 자신의 검지를 절단하여 부모의 생명을 구하다 -

군자면 원시리에 살았던 밀양 박씨의 이조모께서 그의 시부모님이 중병으로 누워 계실 때 주야로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다 별별 명약과 유명한 의원을 초청 진료해도 별 효과가 없어 심히 애태우던 중 거북이의 피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거북이를 구하려고 애쓰던 중 마침내 신이 감복하여 개천 얼음속에 거북이 한마리가 나타나 이 거북이를 잡아 피를 복용시켰으나 효과가 없어 더 병세가 악화되어 사경에 이르자 최후 수단으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절단하여 수혈하자 소생이 되었다고 한다.

또 그의 아들 세철도 부친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생하던 중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리하여 세철도 열녀의 어머니 밀양 박씨의 뜻을 받들어 그의 검지를 잘라 피를 수혈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였다 한다.

그 후 양대에 걸친 효성이 지극함이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였던 바 그 사실을 대왕께까지 전해지고 그의 효성을 지극히 칭찬한 후 고종29년(1892년)에 열녀문과 효자문을 사사하였다.

1-6 효자 최사립 (孝子 崔斯立)

—지극한 효성으로 말라죽은
흙에서 꽃이 피다—

효자 최사립은 이조 중종때 사람으로써 지금의 과천면 사람이다.

최사립은 평소부터 효행이 지극하여 그의 효성은 근동에 자자했다.

어느 겨울날 그의 부친께서 병환이 대단하여 이름있는 의원 및 약을 다 썼으나 효험이 없어 걱정하던 중 병환중인 부친께서 “내가 흙 꽃을 먹으면 살 것 같다” 라고 하셨지만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에 흙 꽃을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최사립은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에게 흙 꽃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방 벽을 엮은 다 죽은 흙 넝쿨이 벽을 타고 뻗어나와 흙 꽃이 피었다.

그는 신령님께 감사하고 꽃을 부친께 드렸다.

이후 부친의 병환은 셋은 듯이 다 낫았다.

이처럼 신까지 감동시킨 효행이 알려지자 조정에 알리어 중종 대왕으로부터 효자문을 사사 받았다. 이후 후손이 관리하고 보존하던 중 효자각은 소실되고 효자문만 후손인 최종수가 보관하고 있다.

1-7 하우명 (河友明)

—지극한 효성으로 호랑이가 잡아먹은 오리가 다시 살아나—



하우명은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에서 조선조 세조시대에 태어났으며 그의 호는 연당(連塘)이다.

그는 모친을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을 다 하였으며 조석으로 올리는 진지상의 찬을 만들어 먼저 맛보며 손수 조리한 것이 아니면 진지상을 올리지 않았으며 그의 모친도 또한 하우명이 조리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 우명이 친히 조리를 못할것 같으면 음식을 잡수시지 아니하였다 한다.

이토록 지극한 효성을 드렸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 애통하고 심상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제사(祭祀)의 음식을 손수 마련하여 갖추고 나무하고 물 깃는 일까지 손수하면서 3년을 마쳤으며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세조왕이 도진무절제사(都鎮撫節制使)로 기용코자 하였으나 두 번이나 지병을 빙자하여 사양하고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시묘(侍墓)를 설때 묘앞에 등을 켜는 대석을 설치하고 밤이 새도록 등불을 밝혔었다. 하루는 등불이 꺼지고 등잔이 넘어졌다. 어찌된 연유인지 몰라 애통하게 호흡하며 탄식하였다.

그 이튿날 밝은 여우 한마리가 등잔대석 앞에서 죽어 있었다. 또 호랑이가 묘막밖에와 걸터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 하지도 아니하였다. 혹 제사를 지낸 음식을 던져주면 먹었으며 갔다가 다시와서도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였다 한다.

일찌기 하우명은 거위와 오리를 길러 장차 제수(祭需)에 쓰려하였는데 하루는 호랑이가 갑자기 거위를 잡아먹었다. 우명이 탄식하되 「이것은 내가 조상의 제사에 쓸 물건인데, 호랑이가 비록 짐승이지만 어찌 내 마음을 몰라 주는가」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3일만에 거위가 살아서 돌아 왔는데 상한데가 없었으니 이는 다 그의 효성에 감탄함이었다.

모친이 돌아가자 시묘를 살면서 마치 산사람을 섬기는 것 같아 하였는데 문벌이 응당 종복이 없지 아니한데, 셨을따 몸소 운반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나의 정성을 다하여 모친의 모습을 생각하고 초상화를 모신 영당(影堂)을 세워서 계절따라 새로운 제수들을 받들어 제를 올렸다.

양친을 섬김에는 그 효성이 천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예를 다하여 받들었고 기제를 맞아서는 먼저 죽은 형제, 자매, 신위(神位)를 같이 배설(配設)하여 제사를 지내되 우리 부모님께서는 평시에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배가 부르다고 하였다.

그후 지방관(地方官)이 그의 효행을 조정에 상신하니 왕께서 가상히 여기시어 정문(旌門)을 세우고 호세(戶稅)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효행을 기리도록 하였다.

현재 소래읍 신천리에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문(旌門)이 있다.

1 - 8 김 달명 (金達命)

김달명 (金達命) 은 의정김씨로서 사재 (思齋) 문목공 (文穆公) 김정국 (金正國)의 9世孫인 헌납 (獻納) 김한노 (金漢老)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그 품성이 효성스러웠으며 그 어머니 강씨가 병환에 눕게되자 便을 맛보아 길홍을 판단하고 손가락의 피를 입에 흘려넣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생선을 먹고싶다”고 하자 때가 추운 삼동이라 부인조씨가 함께 울며 하늘에 기도하니 고양이와 개가 산고기를 물어다가 놓는 기적이 생기었다.

그후 아버지와 어머니 상을 당하여서는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3년을 죽 (粥)으로 목숨을 견디고, 참외와 과실을 먹지 않으며 날마다 성묘하고 애통하니 무릎을 끊은곳에 풀이 다 말랐었다. 정조대왕 (正祖大王)이 승피 (算避) 하던 날은 그나이 70이었으나夫人과 같이 3년동안 素食하였다. 철종 3년 (1952) 유림 (儒林)에서 포상 (褒賞)하기를 청하여 동몽교관 (童蒙教官)이 추증 (追贈)되고 그 부인도 같이 정려 (旌閨)하기를 請하여 정려의 은전 (恩典)을 받았다.

1 - 9 김동려(金東礪). 동은(東殷)

所在地：始興郡

遺 蹤：

時 代：朝鮮朝

김동려와 동은 형제의 행적이 나라에서 정려(旌閭)의 은전이 있음은 다만 孝한 者를 위해서가 아니라 不孝하는 者를 권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孝道하는 것이 저순(舞)이나 증자(曾子)와 같이 行하여도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들어 내는 것에 일삼을 것도 아닌 것 같으나 옛날로 부터 孝에 能한者는 적고, 能치 못한者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격려하는 方法이 없다면 그 퇴폐하는 풍속으로 보아 조금도 늦출일이 아니고 마땅히 먼저 행할 일이다.

安山의 西쪽에 효자 김동려와 동은형제가 있었는데 본래 시골 사람이어서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동려는 일찍부터 황향과 같은 효행을 하였고 자라서는 農事를 지어 부모를 봉양할 때 몸에 편하고 입에 맞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올렸다. 병환에는 북두칠성에게 기도하였으며 손가락의 피를 입에 흘려 넣어드려 열흘 동안 연명케 하였다. 褒을 當하여서는 沐浴시킬 때 尸水를 핫아 먹었고 장례를 모시는 데는 집안의 힘을 다 하였고 아우 동은과 같이 예제를 엄격히 지켜 술도 마시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고기도 먹지 않았으며, 묘소앞에 여막을 설치하고 비오고 눈오는 날도 가리지 않고 새벽과 저녁으로 勵哭하였다. 마침내 그 몸이 쇠약하는 지경에 이르러 어머니 褒을 當하고 1년이 못가서 죽으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은도 날마다 定省하며 어머니가 종기를 앓으면 그 고름을 입으로 뺏으며 안질이 나면 혀로 핫았다. 돌아가실 때에도 몸을 정결히 하여 돌아 가시게 하였다.

예절을 따르는 것이 그兄과 같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성으로 되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볼때 이 형제는 누가 더 孝스럽다고 말할수가 없

었다.

홍년이 들어 형제가 양곡을 풀어서 집안 친지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람을 다 함께 구제하였으니 이 역시 효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하늘이 주신 이치가 과연 잘못되지 아니함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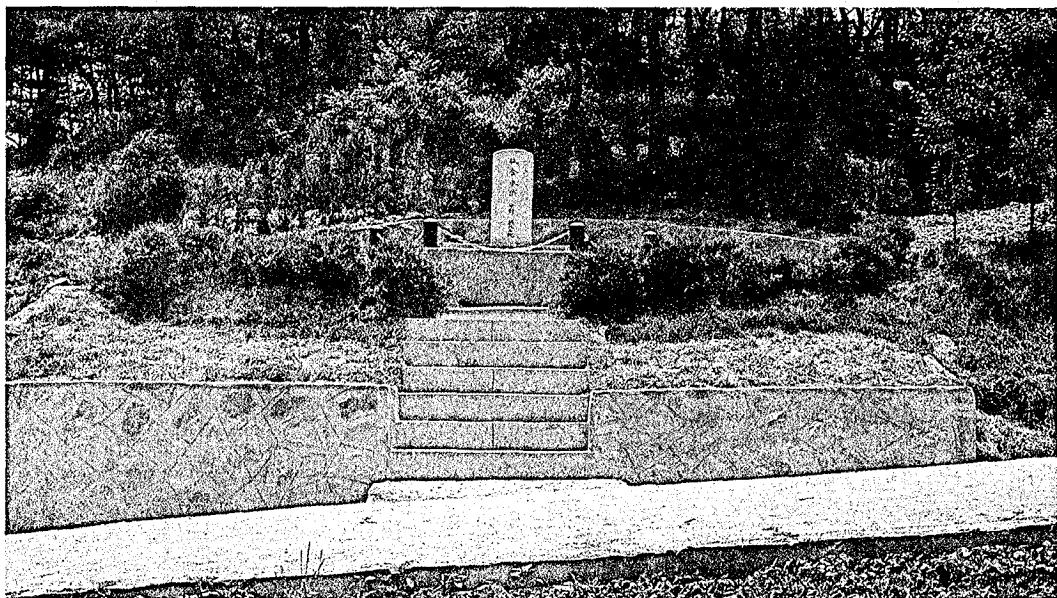
동은의 아들 광의(光儀) 또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올리고 大便을 맛보아 가며 하늘에 기도하였고 父母가 돌아가신 後에는 여막살이 父母를 육되게 아니하며 한 집안에 3孝子가 났으니, 어찌 末世에 보기 쉬운 일이라 하겠는가!

동려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생들의 公議로써 状牒을 올린 것이 卷軸이 되어 정문(旌門)을 세우도록 할 것을 바랐으나 但 나라에 알릴 길이 없어 장차 매몰되는가 하였으나 이에 여막으로 그 동리를 표하여 오래도록 전할 계획을 하니 내 고장 인사의 효도를 넓히는 뜻이 지극하였다. 이 여막을 지나는 者는 반드시 머리를 숙으리며 동려는 누구이기에 탁행(卓行)이 능히 사람들을 감동케 하며 장차 이 여막과 같이 종시(終始)를 같이 할 것이니 우리 또한 사람인 바에 어찌 다투어 사모하고 스스로 권면(勸勉)하여 사람마다 爭과 曾子가 되게 하면 이 여막이 風化에 도움이 됨에 어찌 적다할 것인가! 그 일을 주간하는 것은 비록 士人 김정진(金定鎮), 김달영(金達永)이지마는 내가 一郡의 風化의 責을 받은 자로 간곡히 記文을 쓰라고 하니 감히 “글을 못한다”고 사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辛亥年10月에 水原 李等이 親이 쓴다.

2. 현장의 발자취

2 - 1 김승철 중위 현충비 (金承鐵 中尉 顯忠碑)



김승철 중위는 평안북도 선천군 출신으로 6.25 당시 육사 9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이한림 장군의 부관으로서 근무하던중 1950년 7월 2일 작전임무 수행으로 과천면 갈현리 산13번지의 도로상을 통과하던중 갑자기 숨어있던 괴뢰군 저격병에 의하여 저격을 당하였으나 재빨리 자기의 몸을 던져 방패삼아 이한림 장군을 구하고 장렬하게 숨져간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 준장이던 이한림 장군이 1959. 9. 9 전사 현장에 김승철 중위의 장렬한 순국정신을 기리고자 면사무소 약 1km 못 미쳐 과천면 갈현리 찬우물 부락에 26평의 묘역에 기단 0.7m 높이 1.35m의 현충비를 세워 그의 공을 기리던바 1965년 7월 국방부에서 인수 관리하던중 1970년부터 시흥군(과천출장소)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일 중고등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해마다 묘역을 가꾸며 고인의 영혼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3. 유적 유물의 모습

3 - 1 연 주 대 (戀 主 臺)

지정번호 : 지방기념물 제20호

소 유 : 연주암 주지

위 치 : 시흥군 파천면 문원리

재 료 : 자연암벽 (自然岩壁)

시 대 : 조선조초기 (朝鮮朝初期)

해발 750m의 연주봉 (戀主峰)에 여러개의 크고 작은 죽순처럼 솟아있는 절벽위에 석출을 쌓아 올린곳에 비둘기집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연주대 (戀主臺)이다.

태종 (太宗)이 셋째 왕자 충령대군 (世宗)을 장차 세자로 삼을 뜻을 눈치챈 첫째왕자 양령대군과 둘째왕자 효령대군이 왕궁을 빠져나와 발길 닿는대로 방랑 (放浪)의 길을 떠났는데, 산에서 산으로 헤매이기 수일만에 문득 발을 멈춘 곳이 관악산 (冠岳山)이었다 한다.

그가 관악사 (冠岳寺)에 들어가 입산수도 (入山修道)를 꾀했으나 왕좌 (王座)에 대한 미련과 동경 (憧憬)의 정을 누를 길이 없어 관악사를 현연주암 위치로 옮겼는데 그래도 왕좌에의 미련에 이끌리어 발길은 언제나 왕궁 (王宮)이 바라다 보이는 산정 (山頂)으로 옮겨지곤 하였으니, 두 왕자의 심정을 아로새겨 이곳에 암자를 짓고 연주대라 이름하니 관악사도 어느덧 연주암이 되고 말았다.



3 - 2 별 망 성 (別 望 城)

지정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

위 치 :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442-1

크 기 : 높이 2m 길이 500m

재 료 : 석성(石城)

시 대 : 고려 후기



남양만을 연하여 육지를 상대로 요새지를 형성하였다.

독립봉(獨立峰)의 배면정상(背面頂上)에서 해안을 따라 양소구릉(兩小丘陵)으로 석축하였는데 이것은 몽고내침시 해도(蒙古來侵時 海島)혹은 해안산성(海岸山城)의 하나로서 축성(築城)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하였으나 높이 2m 내외 주위 약 500m가 남아있고 성내에는 청자(青磁) 및 도기편(陶器片)이 출토된다.

평지 가까운 곳에 군영지(軍營址)로 보이는 터(壘地)가 남아 있으며 이 곳 지명인 초지진(草芝鎮)은 2초지(2草芝)라는 전설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져 사곶(砂串)으로 영(營)을 짓겼다가 문종(文宗) 때 소승(昭降)이 인근 목내리(木内里)에 있게 되고 바다가 다시 깊어져 선박의 출입이 가능해지자 다시 영(營)을 두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 3 청계사 동종 (清溪寺 銅鍾)

지정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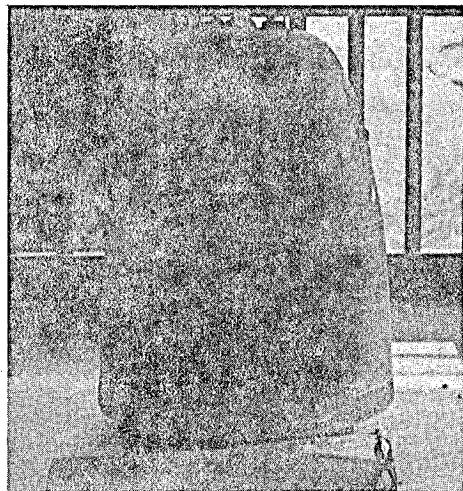
소 유 : 청계사 주지

위 치 :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기 기 : 고 1.1m, 구경 76.5cm

재 료 : 청동 (青銅)

시 대 : 조선 제19대 숙종27년 (1701)



한말에 기록된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청계사는 광주군 의곡면 (義谷面)에 있다고 하였다. 또, 청계사의 주맥은 수원의 광교산 (光教山)으로 부터 뻗어 왔다고 되어있다. 청계사의 창사연혁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말의 지리서 (地理書)에 기록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 범종이 조성된 때가 조선 숙종대왕 27년 (1701)인 것을 종명 (鍾銘)으로써 알 수 있으니 상당한 유래는 있는 절이라 하겠다.

동종은 이 절의 극락보전 (極樂寶殿)과 삼성각 (三聖閣) 바로 앞에 있는 종각 안에 있다. 종의 꼭대기는 수평으로 평펴짐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불려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서로 반대쪽을 향해 있으면서 몸이 엉켜있는 쌍룡의 용纽 (龍紐)가 돌출해 있어 여기에 쇠리를 끼어 종을 매달았다. 어깨 부분에 돌려진 띠는 그 안에 연속으로 꽃무늬를 새겨 장식하였고 맨아랫쪽 종구 (鍾口)의 둘레를 장식한 띠에는 보상화문 (寶相花文)이 연속으로 새겨져 있어 신라 아래의 고유양식을 나타내면서 화려한 장식효과를 내고 있다.

또 종의 어깨 부위 둘레 4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방형에 가까운 4개의 독립된 유곽 (乳廓)을 마련하고 그 안에 각기 9개씩의 유두 (乳頭)를 새겼는데, 유곽의 띠와 유두는 모두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유두의 꽂무늬 자방(子房)만이 다소 도두라진 꼭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장식들도 모두 신라 이후의 한국종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색인 것이다.

한편, 네개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각기 한분씩의 보살입상(菩薩立像)을 새겨 넣었고, 종 몸체의 중허리에는 종을 한바퀴 빙도는 두가닥의 평행선이 도두라지게 새겨져있다. 그 평행선 바로 아래 쪽에는 조선 숙종 27년(1701)에 이 종을 조성했다고 하는 연유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어 그 제작연대를 뚜렷이 알 수 있게 하였다. 명문은 「강희 40년 신사 4월 일 주성, 광주청룡산청계사대종 중700근(康熙四十年辛巳四月日鑄成廣州青溪寺大鍾重七百斤)」이라 하였다. 이 명문으로 보면 당시 절에서는 지금의 청계산을 청룡산이라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淸”자도 “青”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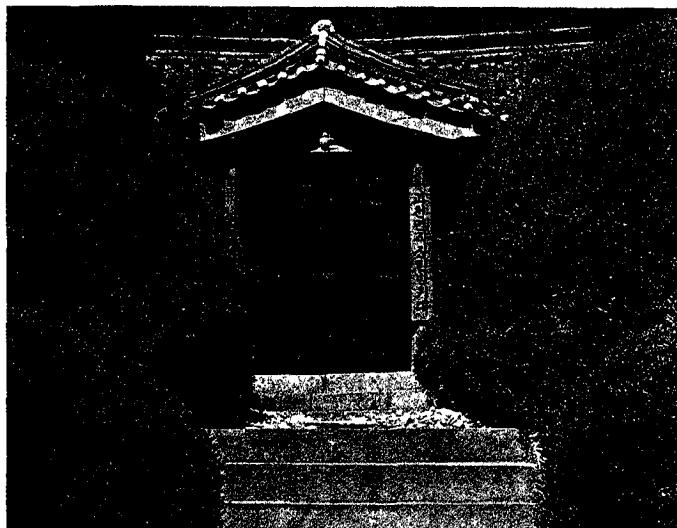
조선시대 후기 범종의 형식과 특색을 고루 갖춘 비교적 큰 종이며, 귀중한 자료이다. 높이는 110cm, 구경(口徑) 76.5cm, 머리쪽 직경 42cm, 종구의 두께 7cm이다.

3 - 4 온 온 사 (穩 穩 舍)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제 제100호

위 치 : 시홍군 과천면

필 자 : 정조대왕 (正祖大王)



온온사는 이조22대 왕이신 정조대왕께서 선친이신 사도세자의 능이 있던 수원의 장릉 (莊陵)을 참배하려 갈때 쉬던 객사로 후에 현청으로 사용 하였다.

현재 과천면 사무소의 위치가 원래 그 자리라 하는데 지금은 그당시 것으로 추측되는 석축들이 있으며 「온온사」의 현판은 정조대왕의 어필 (御筆)이다.

하루는 정조대왕께서 용능참배차 수원에 내려가는데 피로한 몸을 쉬고자 잠시 객사에 들렸는데 심신 (心身)이 하도 편하여 기이하게 여기고 객사의 이름을 온온사라 하여 어필을 내리셨는데 그 현판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현판의 크기는 168cm×77cm로써 지방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3 - 5 연주암 삼층석탑 (戀主庵 三層石塔)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소 유 : 연주암 주지

위 치 : 과천면 문원리 산 158

크 기 : 고 3.2m

재 료 : 화강암 (花崗岩)

시 대 : 고려시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각부의 비례가 잘맞고 수법도 정연하여 중기 (中期) 시대로 본다.

그러나 사찰측에서는 신라 문무왕 17년 (677)에 의상조사 (義湘祖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한편 연주암 경내 (戀主庵 境內)에 영정 (影幀)이 있는 조선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 (孝寧大君)이 암자 (庵子)에 머무르면서 건조하였다고 한다.

기단 (基壇)은 4 매의 판석 (板石)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1 매의 갑석 (甲石)에는 부연 (副椽)이 있고 그 상면에는 탑신괴임대 3 단이 있으며 정상은 반전 (反軛)이 있는 높은 괴임대가 있다.

옥개석 (屋蓋石)은 각 1 매씩으로 조립되어 있고 옥신 (屋身)에는 양우주 (兩隅柱)가 있다. 옥개석의 1 층 아랫면의 발침은 4 단이고 2, 3 층은 3 단이며 옥개정상 (屋蓋頂上)에는 각형괴임 1 단이 있다.

전각 (転角)에 반전 (反軛)이 있고 로반 양화, 보개 (露盤, 仰花, 寶蓋)가 남아 있으며 낙수홀이 있다.

3 - 6 죽음으로 보국한 조병세 묘 (趙秉世 墓)

수암면 조남리 26번지에는 조선말기의 순국열사 조병세선생의 묘가 있다. 조병세(趙秉世)는 1827년(순조27)에 가평군 청평(淸平)에서 현감 조유순(趙有淳)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1859년(철종10)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고 1864년(고종1)에는 철종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1874년(고종11)에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고 1887년(고종14)에는 대사성(大司成)으로 승진하였으며 이어서 대사헌 등을 거쳐 1887년(고종24)에는 공조 판서가 되었다. 이듬 해에 예조판서·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889년(고종26)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893년(고종30)에는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인 1894년(고종31)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중추원(中樞院)의 좌의장(左議長)이 되었다. 뒤에 고종의 고문적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가평에서 세월을 보냈다. 1996년(건양1)에 폐정(幣政) 개혁을 위한 시무책(時務策) 19조를 상소하고 1998년(광무2)에 의정부 대신에 임명되었으나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905년(광무9) 11월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었다. 노·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여러 나라로 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특수 이익을 인정받게 되자 곧 한국을 그의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진회(一進會)라고 하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게 되고 일본 정계의 원로인(이또오)를 파견하여 일본 공사(하야시)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보호 조약안을 승인하도록 강요하였다. 조약안이 거부되자 그들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참정(수상) 한규설(韓圭燦)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고 외부(외무부)로 가서 외부 대신의 도장을 가져다가 강제로 조약에

날인하여 버렸다.

이 을사 조약의 내용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를 일본이 통리 지휘한다는 것,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띤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못한다는 것, 일본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황제 밑에 통감(統監) 한 사람을 둔다는 것 등이었으니 요컨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병세는 통곡하면서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내 신하로서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79세의 노구를 무릅쓰고 상경하여 을사 5 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주장하려고 황제의 알현을 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방해로 고종과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조병세는 참정 심상훈(沈相勲) · 시종 무장관 민영환(閔永煥) · 특진관 이근명(李根命) 등과 백관을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가 상소의 우두머리로서 5적을 처형할 것과 조약의 폐기를 단행할 것을 상소하여 황제로부터 「소장을 보 진대 공분(公憤)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처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물러났다.

이튿 날, 상소가 별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둘 것 같지 않자 조병세는 원임 의정대신의 자격으로 각부(各部)에 통첩을 보내어 대소 관원의 궁내 집합을 통고한 다음, 이근명 등과 함께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심상훈 · 민영환 · 이근명 등과 백관을 인솔하고 수일간 궁궐에서 연좌하면서 상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1월 27일에는 일본 현병들에 의하여 표훈원(表勲院)에 구금 당하게 되었다. 조병세가 구금된 뒤에는 민영환이 대신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조약 폐기를 요청하였지만 민영환

역시 연행되어 평리원(平理院)에 구금되었다.

뒤에 조병세는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가평에 추방되었으나 12월 1일에 다시 상경하여 대항문 밖에서 석고 대죄하면서 조약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때 일본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체포하고 억지로 교자에 태웠다. 국난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분통히 여진 조병세는 교자 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편을 꺼내어 마시고 죽질 조민희(趙民熙)의 집에 당도 하였을 때 그의 용태는 이미 위독한 지경이었다.

당황한 일본 헌병들이 의사를 부르라고 수선을 떨었으나 이때 그의 사위 이용직(李容稙)이 꾸짖기를 「이놈들아, 우리 대한의 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코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이 무슨 일로 간여 하며 또 돌아가시는 분을 육보이느냐」고 하자 모두 도망쳐 버렸다. 조병세는 절치 부심하여 순국하니 때는 1905년 12월 1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마치 부친상을 당한 듯이 슬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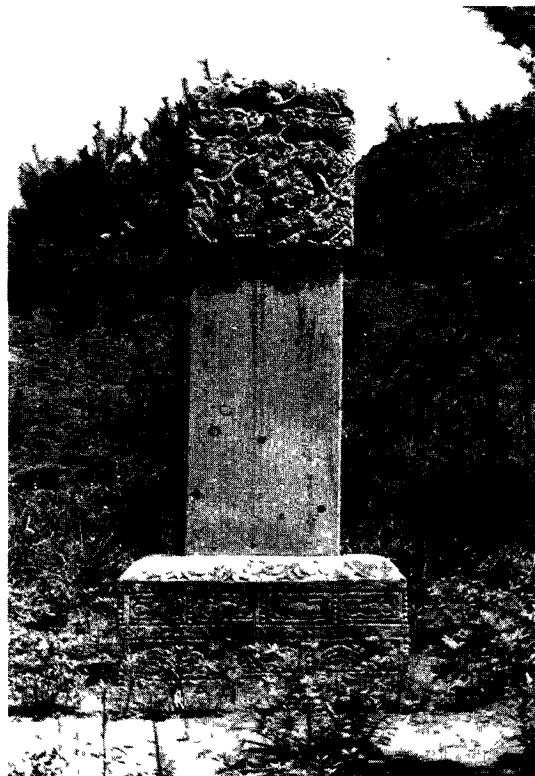
그는 자결하기 전에 각국 공사 및 동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는데,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조병세는 원로 대신이나 우리 나라 사례에 비추어 국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내오니 귀 공사는 즉각 회동하고 담판, 조약을 부인하여 우리의 주권을 잃지 말게 하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일본 공사에게도 서신을 보내 준열하게 꾸짖었다. 그의 생애야말로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료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7 조선대문신 장운익 (張雲翼)의 신도비

장운익 (明宗16년 (1561) ~ 宣祖32년 (1599))은 조선대의 문신으로 자는 만리 (萬里) 호는 서촌 (西村), 본관은 덕수 (德水)이며, 장유 (張維)의 부로 선조 12년에 (1579) 사마시 (司馬試)를 거쳐 1582년 식년 문과 (式年文科)에 장원급제 하여 공조좌랑, 예조정랑, 장령 (工曹佐郎, 禮曹正郎, 掌令) 등을 지내고 1591년 양양부사로 재직중 정철 (鄭澈)의 일당이라 하여 귀양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도승지, 해주목사, 형조판서 (都承旨, 海州牧使, 形曹判書)로서 접반사 (接伴使)가 되어 명나라 제독 마귀 (提督 麻貴)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울산싸움에 참전했으며 후에다시 형조판서가 되었다.

시호는 정민 (貞敏)으로 이 비 (碑)는 김상현 (金尚憲)이 찬 (撰)하고 신익상 (申翼相)이 썼으며 최석정 (崔錫鼎)이 전 (篆)하였으며 그의 묘는 수암면 조남리에 있다. 신도비는 崇禎戊後六十二年 己巳十一月 立이라 되어있다.

비대석 (碑臺石)은 높이 94cm로 하부에는 3 구획으로하여 운문 중부 (雲文中部)에는 4 구획으로 하여 안상 상부 (眼象 上部)에는 복련 (覆蓮)이 있고 비신 (碑身)은 높이 2.05m 이수 (螭首)는 높이 1.1m이다.



3-8 조선대문신 장유의 묘 (張維 墓)와 신도비

장유 (宣祖20년 (1587) ~仁祖16년 (1638))는 조선조의 문신으로 자는 지국 (持國) 호는 계곡 또는 묵소 (谿谷, 默所)로서 본관은 덕수 (德水)이다. 선조38년 (1605) 사마시 (司馬試)를 거쳐 광해군 1년 (1609) 증광문과 (增廣文科)에 을



과 (乙科)로 급제한 후 주서, 검열 등을 지내다가 광해군 4년 (1612) 김직재의 무옥 (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이조좌랑, 이조정랑을 지내고 정사공신 (靖社功臣) 2等에 봉해졌다. 그후 대사간 대사헌 대사성을 지내고 1624년 이괄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 (扈從)하여 신풍군 (新豐君)이 되었고 인조 5년 (1627) 정묘호란 (丁卯胡亂) 시에는 강화로 왕을 호종 (扈從) 하였으며 예조, 이조판서를 거쳐 1636년 병자호란 시 (丙子胡亂時)에는 공조판서로 최명길 (崔鳴吉)과 함께 강화 (講和)를 주장하였다.

이듬해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으며 그후 신풍부원군에 진봉 (進封) 되었는데 천문, 지리, 의술, 병서 (兵書) 그림, 글씨에 능했고 시호는 문충 (文忠)이다.

그의 묘는 수암면 조남리에 있으며 묘 (墓) 앞에 비 (碑)와 상석 (床石) 향로석이 있고 문인석 (文人石)이 있으며 신도비 (神道碑)로 송시열이 찬 (宋時烈 撰)하고 심익현 (沈益顯)이 썼으며 숭정기원 무장후병진 시월 입 (崇禎紀元 戊辰後丙辰 十月 立)이라 쓰여 있는데 귀부 (龜趺)는 $2.5m \times 4.2m$ 에 높이 1.3m이고 비신 (碑身)은 $1.3m \times 32cm$ 에 높이 2.65m이며 비개 (碑蓋)는 옥개 (屋蓋) 위에 용 (龍)이 조각되어 있다.

3-9 인조대인물 한준겸 (韓浚謙)의 묘 (墓)와 신도비 (神道碑)

한준겸 (韓浚謙)은 조선 (明宗 12년 (1557) ~ 仁祖 5년 (1627) 때의 인물로 자는 익지 (益之) 호는 유천 (柳川)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판관효운 (判官孝胤)의 아들로서 인조의 장인이다. 선조 (宣祖) 12년 (1579) 생원 (生員)이 되어 태릉 참봉, 겸열, 정자, 주서, 전적을 거쳐 1592년에는 예조정랑, 원주 목사 (禮曹正郎, 原州牧師)를 지냈고 그후 지평, 교리, 사인, 응교, 동부승지, 우승지, 경기도관찰사, 대사성, 경상도관찰사 를 역임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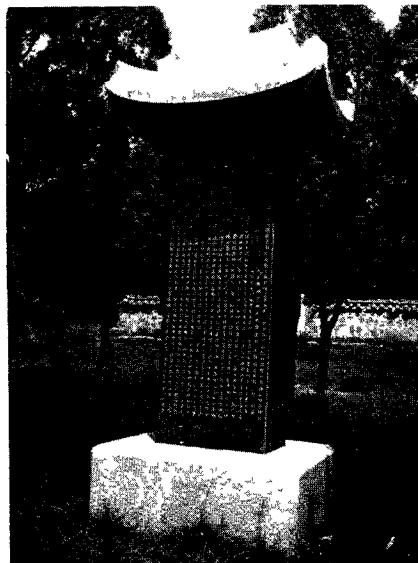


며 1605년에는 호조판서 (戶曹判書)가 되었고 선조 (宣祖)로 부터 영창대군 (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 (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계축옥사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할 적임자로 뽑혀 유배지에서 지중추부사 (知中樞府事)에 임명되어 오도 도원수 (五道 都元帥)를 겸임하여 국경 수비에 힘썼으며 1623년 인조반정 (仁祖反正)으로 떨어 인열왕후 (仁烈王后)로 책봉되자 서원부원군 (西原府院君)에 봉 (封) 해졌으며 이팔 (李适)의 난때 공주로 왕을 호종했다.

시호 (謚號)는 문익 (文翼)이다. 그의 묘는 군자면 거모리 산 62번지에 있으며 봉분 (封墳) 앞에 상석 (床石), 향로석, 동자석 2, 묘갈, 묘비, 망주석 2, 문무석 각 2, 4 각 장명등이 있다.

신도비 (神道碑)는崇禎 2년 기사 ((己巳) (1629)) 10월에 세운 것으로 비문 (碑文)은 이연구가 찬 (李廷龜 撰)하고 김상용 전 (金尚容 篆)하여 오준이 썼다.

3-10 조선조문신 하연의 묘 (河演 墓)와 신도비 (神道碑)



하연 (河演) (고려 우왕(禡王) 2년

(1376) ~ 조선 단종 (端宗) 1년 (1453) 은
조선朝의 문신 (文臣)으로서 자는 연양
(淵亮)이며 호는 경숙 (敬肅)으로 본관
은 진주 (晋州)인데 태조 (太祖) 5년
(1396) 식년문과 (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봉상시 록사 (奉常時 錄事)를 거쳐 직예
문춘추관수찬관, 집의 동부대언 (直芸文
春秋館修撰官, 執義, 同副代言) 등을 역
임하고 세종 (世宗)이 즉위하자 지신사,

예조참판 (知申事, 禮曹參判)을 지낸 후 세종 5년 (1423) 대사헌으로서 조계종
(曹溪宗) 등 불교 7종파 (佛教 7宗派)를 선, 교, 양종 (禪, 教, 両宗)으로 통합
할 것을 건의 시행케 했으며 경상도관찰사 예조참판 (禮曹參判) 평안도관찰
사에 부임했고 한때 유배되었으나 다시 형조참판, 대제학, 대사헌, 좌참찬,
우찬성에 올라 70세로 케장 (凡杖)을 하사받고 영의정 (領議政)에 이르렀다
진주 (晋州)의 종친서원, 협천 (陝川)의 신친서원에 제향 (祭享) 되었고 단종
(端宗) 2년 (1454)에 문종 (文宗)의 묘정 (廟庭)에 배향 (配享) 되었으며 시호 (諡
号)는 문효 (文孝)인데 그의 묘는 소래읍 신천리 421 번지에 있으며 묘
(墓) 주위에는 문무인석 각 2기 망주석 묘비가 있다

신도비 (神道碑)는 장방형화강암 지대위에 오석 (烏石)의 비신 (碑身)을 세
웠으며 가첨석 (加檐石)을 돌려놓았는데 비문 (碑文)은 남지근 이 찬하고 (南
知謹撰) 김교덕 서, 전 (金教惠 書, 篆) 하였으며 근년 (近年)에 세운 것이다.

3 - 11 영 회 원 (永懷園)



영회원은 시흥군 소하읍 노온사리(광명시 학온동)에 있다.

온신국민학교에서 동남 약1.5km 지점으로 속칭 아왕릉(兒王陵) 이라고한다

「아왕릉」은 이조16대 인조대왕의 소현빈을 모신 능으로 본군 출신인 강감찬 장군의 19대손이다.

병자호란으로 인조와 소현세자를 비롯하여 제2, 3의 왕자와 문무제신이 청조에 인질로 잡혀 갔었으며 이를 구출하는데 임경업장군의 공이 커졌다

한편 나중에 세자들을 석방하면서 청제(淸帝)는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노라고 마음도 외로웠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소원을 한가지 청하면 들어주겠노라”고 하였다.

제 1 왕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청제가 애용하고 있던 용적(龍硯) 을 청하여 이를 받았으며 제 2, 3 왕자는 “우리 세왕자만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청국에 잡혀온 우리나라 사람 모두와 동행하여 귀국하고자” 라고 원하였다.

이리하여 세자들과 납치되었던 전원이 무사하게 귀국하게 되었으며 이런 내용을 들은 인조는 제 2, 3 왕자를 깊이 칭송하고 제 1 왕자인 소현세자를 불러 「너는 아비에게 욕을 끼쳤을 뿐 아니라 나라의 위신을 상하게 하는 대죄를 지었으니 용적에 목숨을 바쳐 사죄하라」 하시고 그 용적으로 세자를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한다.

이 비운을 당한 세자빈 강씨는 인조를 효성으로 받아들여 그 현숙함이 칭송이 자자했고 인조 또한 그를 몹시 아꼈으나 어느 날 간신의 모함으로 세자빈은 사약을 받아 병술(丙戌)년에 죽었다.

세자빈은 죽음과 함께 서민으로 제적이 되어 소하읍 노온사리에 매장되니 그것이 바로 영회원의 유래이다

간신의 모함으로 무고히 죽어간 소현세자빈은 초라한 무덤으로 지냈었으나 숙종때에 세자빈의 무고함이 들어나 세자빈으로 복위되고 원회묘(怨懷墓)라 하던 것을 지금의 영회원으로 개칭하였다.

이 일대에는 노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묘원의 분위기를 자아냈으나 일제시대 무분별한 벌채로 모두 베어지고 잡목만 남아 있어 더욱 초라한 모습이며 현재는 광명시 학온동에 소재한다.

3-12 고 송 정 (枯 松 亭)



고송정은 수암면 화정리 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선 세조 2년 (1456) 조부 김문기 (金文起)의 부친 김현석 (金玄錫)이 단종복위 모의에 가담했다가 탄로되어 참화 (慘禍)를 받자 호자 김충주 (金忠柱)는 야밤에 도성을 탈출하여 안산땅 화정리 마하산중 (麻霞山中)에 이르러 숯을 구워 파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호를 스스로 탄옹 (炭翁)이라 하였다 한다 「그는 매일 산정에 올라 바위에서 단종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니 산정에 있던 소나무도 눈물에 젖어 말라 죽었다 하여 고송정 (枯松亭)이라 부르며 그 바위를 망월암 (望越岩)이라 하며 소나무가 서있던 그곳에 정자를 세워 고송정 (枯松亭)이라 칭했다 전하는데 정면 2간 측면 2간, 굴도리 집으로 각주이며 겹쳐마에 팔작 (八作) 지붕이다.

3-13 사세충열문 (四世忠烈門)



소재지 : 시흥군 수암면 와리 157

크기 : 통식중형 (通式中型)

소유자 : 金相默

시대 : 조선후기 (朝鮮後期)

조선 제14대 선조25년 (1592) 임진왜란 (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당시 충신인 김여물 (金汝物)은 자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유서를 남겼다.

“남아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 신하의 도리이나 다만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장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뿐이다.”라고 말하고 죽기를 결심한바 탄금대 (彈琴臺) 아래에 이르러 적의 무리 수십명을 죽이고 자결하였다. 그때는 1592년 (선조25년)로 난령은 45세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영의정 김유 (子 領議政 金壘) 손자 강도검찰사 김경징 (孫子江都檢察使 金慶徵), 증손 돈영부도정 김진표 (曾孫 敦寧府都正 金震標)의 처 (妻) 4명이 인조 4년 (仁祖14년 1636年) 병자호란 (丙子胡亂) 때 나라가 패하자 다함께 강화도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 (殉節) 함으로써 적군에게 옥을 면하였다. 그후 그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이 열여문 (烈女門)을 세워 주위에 담을 쌓고 삼문 (三門)을 세웠다.

3-14 시흥향교 (始興鄉校)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관악산록에 자리한 향교로 언뜻 보아도 명당임을 알수 있다. 홍살문 바로 앞에는 관악산 계곡에서 머금은 맑은 물을 토(吐)하고 오른쪽 아득히 청계산이 보이며 신도시 건설이 한창인 과천벌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대도시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속리(俗離)된 향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몇 백년은 됐음직한 느티나무가 향교를 찾는 이들을 반겨주고 한여름이면 매미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입구에 들어서면 옛 선인들의 도장(道場) 내음이 물씬 풍기는 듯하다 천연의 지세를 그대로 살려 지은 까닭인지 관악산의 정기가 이 곳에 모였음을 무래한이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고옥 사찰 어느 곳이나 볼 수 있는 낯익은 홍살문을 들어서면서 옛 유생들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을듯 말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정문에 당도하면 선비들의 낭랑한 글읽는 소리가 매미소리로 재현되는 듯 귀를 울린다 향교에서는 소위 유교



에서 말하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설총, 최치원, 등 동방 18현에 대한 분향을 매년 춘추에 올리고 있다. 이 때면 깨끗이 정리한 푸른 색의 예복에다 관모를 차려입은 모습이 향교라는 분위기와 어울려 흡사 몇 백 년 전의 관가에 온 느낌이 절로 나게 된다.

그 모습을 보면 옛 유생들이 강의를 받던 명륜당에서 예복을 갈아 입은 이들은 옛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에 올라 정중히 도열한 뒤 분향축(焚香祝)을 한뒤 차출된 2인의 현관에 의해 분향을 하고는 5번에 걸친 배례를 정중히 한다. 이같이 오늘의 향교는 옛 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고 옛 의식만이 남아 있어 쓸쓸한 감회를 느끼게 한다. 이에 지금을 사는 현대인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새삼스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고(思考) 속에는 알게 모르게 인의(仁義)도덕의 근간이었던 충효의 사상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유교의 도장으로 대표되었던 향교의 위용이 되살아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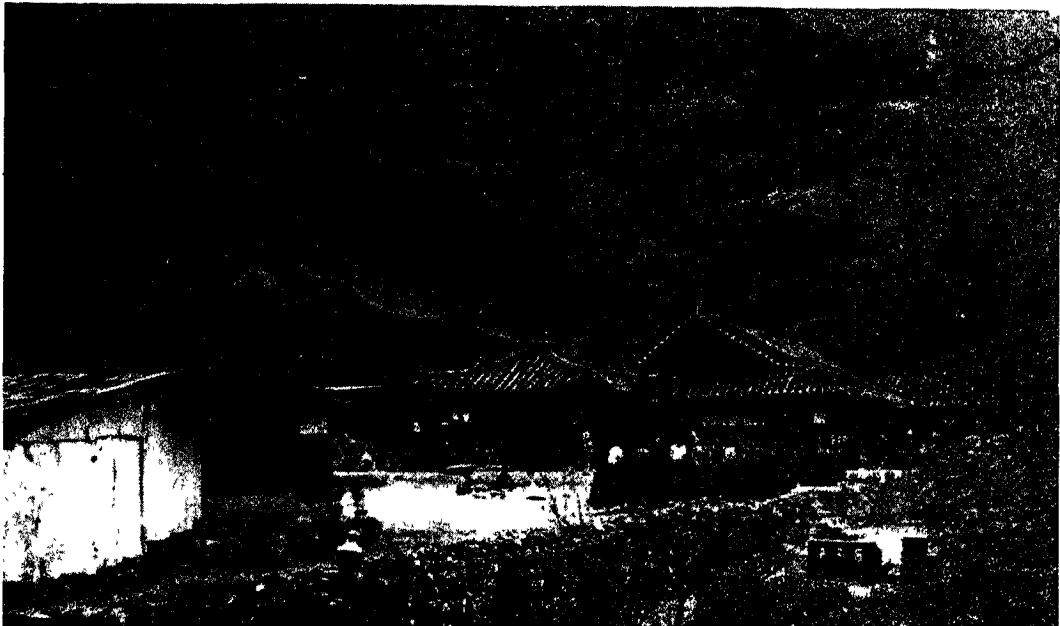
이 향교는 지금부터 6백 여년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유교존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즉, 태조는 개국 당시 전국 160개의 주군(州郡)에 1개교씩 향교를 설립하여 짚은 이의 교육기관으로 출

발하였고 교육정책을 시현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398년(태조 7)에 개교했다. 지금도 지정이외의 문화재 건조물 제12호로서 보존되고 있는 이 향교는 설립 당시 과천향교라 하였다.

대개의 향교가 수백년 내려오면서 수난을 당했듯이 이 향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병화(兵火)로 소실되고 또, 복원한 비운을 맞이 했었다. 이 외에도 이 향교가 개교된 지 2년만에 즉 정종 2년에 원인모를 불로 소실, 1410년 다시 재건되는 등 기구한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던 것이 1690년(숙종 16)에는 당초 세웠던 지금의 가일리에서 서이리로 이전 신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2백 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나 과거에 급제한 유생이 없었기 때문에 향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이 심했던 것 같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당시 향교를 운영하고 있던 현감의 일반 사람의 비판을 풍수지리적으로 설명하여 여론을 피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 신축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되어 오는것을 들어 보면 향교를 이전한 후에 많은 인재가 장원급제하여 이 향교에 대한 명성이 서울 장안에 자자했다 한다. 1944년에 과천향교, 안양향교, 시흥향교를 통폐합하여 현재의 시흥향교로 불리우게 되었다 하며 지금의 건물은 1975년에 보수하였다.

대성전은 전면이 3칸, 측면이 2칸(15.6평)의 익공(翼工) 양식에 겹쳐마로 된 맞배지붕이며, 명륜당은 전면이 4칸, 측면이 3칸(20.6평)으로 각 1칸씩 늘린 것이다. 이외에 내·외삼문이 있다.

3-15 청계사 (清溪寺)



소재지: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기: 중형사원(中型寺院)

관리자: 청계사주지

시대: 고려창건 현상은 조선
현재의 사찰규모와 가람(伽藍)의 배치는 조선시대의 전형(典型)으로 보
이며 고대의 사찰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측의 말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중엽 제26대 충선왕(忠宣王) 때에 의천국사(義天國師)가 창건한 사찰이라 한
다.

조선 제10대 연산군이 도성내에 있는 사찰을 없애고 그곳에 관청을 세
우자 불교측에서는 이곳을 선종(禪宗)의 본산(本山)으로 정하였다고 전한
다.

수차에 걸쳐서 중수(重修) 하였다고 하는데 사찰내에는 극락보전(極樂寶殿)
과 산신각(山神閣) 삼성당(三聖堂) 봉향각, 요사가 있다 또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탑, 석등, 옥개석의 파괴된 부재가 있으며 사적비(事蹟碑) 2
기가 있는데 이중 하나는 승정기원후기사년(崇禎紀元後己巳年) (1689)에 조
성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오래 풍화 작용으로 마모되어 판독할 수
가 없어 안타깝다

3—16 청계사극락보전 (清溪寺極樂寶殿)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11 크기 : 중형 법당 (中型法堂)

관리자 : 청계사 주지 시대 : 조선후기 (朝鮮後期)



고려시대에 창건하였다 하나 법당등의 건물 양식으로 보아 상당히 후기의 건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중엽 제26대 충선왕(忠宣王)때 창건하였다는 청계사의 극락보전은 그 규모가 정간(正間)이 3간(30평)에 익공양식(翼工樣式)이고 목부(木部)에는 단청이 칠해져 있으며 겹치마에 팔작(八作) 지붕으로 전면은 각각 4분합의 세살문이 있다.

내부에는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과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조불상들이고 중수(重修) 할때에 대들보에서 「庚子三年三月」이라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1968년 단청을 다시 칠하고 1973년에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3 - 17 연주암대웅전 (戀主庵大雄殿)

소재지 :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158 크기 : 중형 법당 (中型法堂)
관리자 : 배송원 (裴松園) 주지 시대 : 창건조선 현상은 근세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근세의 건축물이나 해발 638M의 높은 산정에 법당 (法堂)을 세워 주목을 끌고 있다.

8작 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로 단청이 화사한 정면 3간, 측면 3간의 건물이다.

도형 (図形)의 주초석 (柱礎石) 위에 건물을 세웠다.

1491년 7月 29日에 세운 대웅전 중창 공덕비 (大雄殿 重創 功德碑) 가 대웅전 옆에 있으며 1972년에 중수 (重修) 했다고 한다.

3 - 18 연주암금륜보전 (戀主庵金輪寶殿)

소재지: 시흥군 파천면 문원리 산 158

관리자: 배송원(裴松園) 주지

재료: 목재

크기: 소형 법당

시대: 조선 후기



조선후기 (朝鮮後期)의 건물이나 현재 이곳 연주암 (戀主庵)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정제된 기법 (技法)을 보이는 건물이다.

대웅전 (大雄殿)의 뒷편에 있으며 맷배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로 좌우에 방풍판이 있다.

단청이 화사한 정면 3간, 측면 2간의 건물이다.

내부의 중앙에 칠원성군이 있으며 왼쪽에 산신 (山神) 오른쪽에 촉성 (焰聖)을 모시고 있다.

* 금륜보전 (金輪寶殿) 이란 현판은 해강 (海岡)의 글씨로 금박을 입혔다

3 - 19 연주암연주대약사여래입상(戀主庵戀主臺藥師如來立像)

소재지 : 시흥군 파천면 문원리

산 158

관리자 : 배송원(裴松園) 주지

재료 : 화강암(花崗岩)

크기 : 전고(全高) 1.17m

시대 : 고려 현상은 근세



현재 많은 가공(加工)이 보이나 원형을 살피기에는 충분하며 불교미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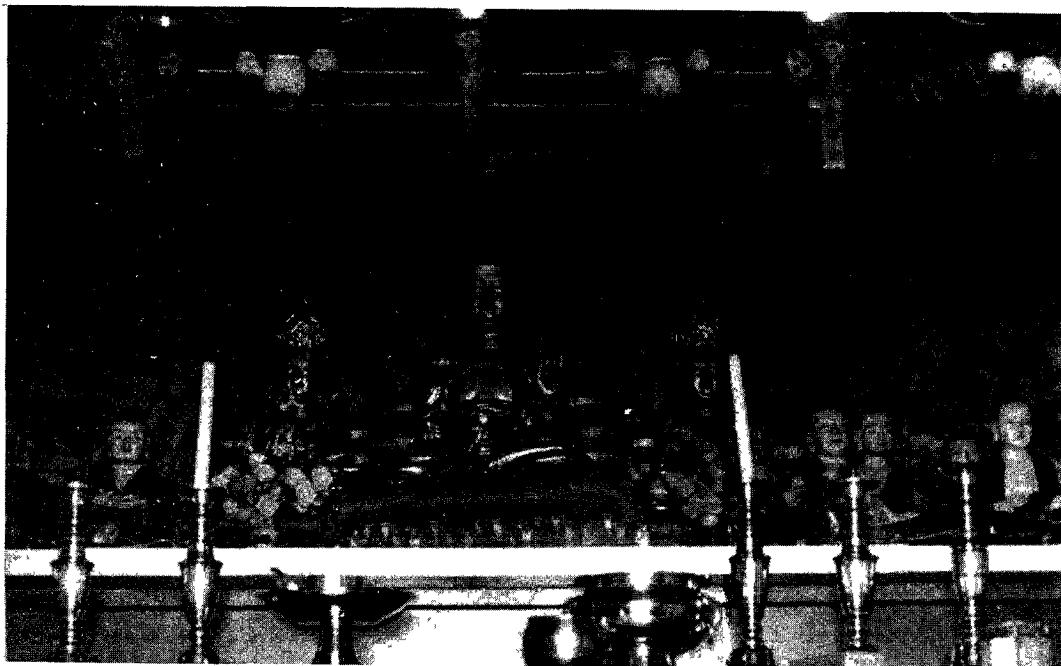
응진전(應眞殿) 옆 암벽에 감실(龕室)을 마련하고 개석(開石)과 좌, 우판석의 벽면 양연상대(仰連上臺)로 이루어진 감실(龕室) 안에 마애(磨崖)의 형식으로 봉안(奉安)하였다.

본래 보주형 두광, 신향(頭光, 身光)을 구비한 양각(陽刻)된 불상이었으나, 마멸되어 그 표면에 석고로 조상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방형의 하대간주, 상대받침 1석과 그 위가 감실(龕室)인데 옥개하면(屋蓋下面)에는 서까래가 표현되고 상면에는 합각머리가 뚜렷하다. 8작지붕의 감실(龕室)은 크기가 110cm×90cm이다.

본래의 마애불은 高 117cm 약사여래입상은 高96cm, 간주 高112cm, 광배 폭67cm, 상대크기 94cm×50cm이다.

3-20 연주암 응진전라한정 (戀主庵 應眞殿羅漢幀)



소재지 :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산 158 자료 : 견직 (絹織)

관리자 : 배송원 (裴松園) 주지 크기 : 全長 2.68m 高 80cm
시대 : 조선 후기

그림이 그려진 연대 (年代)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부드럽고도 화사한 화풍 (画風)이 주목되며 이곳의 불정 (佛幀)으로는 가장佳作에 속한다 응진전내 (應眞殿内)에 있는 라한정 (羅漢幀)은 16라한정으로 1폭에 8분의 라한 (羅漢)을 모시고 있으며 전부 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의 크기는 134cm × 80cm이다.

라한상 (羅漢像)의 의문, 의습 (衣文, 衣褶) 등이 사실이고 특히 산수목 (山樹木) 등 도식화 (圖式化) 된 감이 있으나 금박 청, 록, 적색 등의 색칠이 화사한 편이다.

응진전 (應眞殿)은 1492年 6月에 중건 (重建)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전에는 「의상대」라 했다 한다.

3 - 21 청계사아미타여래좌상 (清溪寺阿彌陀如來坐像)



소재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산 11

재료 : 목재

관리자 : 청계사 주지

시대 : 조선후기

청계사(淸溪寺)의 주존불(主尊佛)로 봉안된 것인데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조성(造成)된 것으로 각부(各部)가 정제(整齊)되고 단아(端雅)하여 주목된다.

극락보전(極樂寶殿)의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阿彌陀如來坐像) 좌우에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脇侍)하고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라발(螺髮)의 머리에 육계(肉髻)가 크고 목에는 3도(3道)가 있고 법의(法衣)는 통견이다.

좌우의 보살(菩薩)은 머리에 화관(花冠)을 썼으며 모발이 흘렀고 법의는 통견이다.

좌상(坐像) 高 110cm 보살상(菩薩像)의 高는 各 107cm이다.

4. 총 람

4 - 1 인 물

인 명	생 애 및 사적
1 김명국 (金明國)	<p>일명은 명국(命國, 鳴國)이다.</p> <p>자는 천여(天汝)오, 호는 연담(連潭) 또는 취옹(醉翁)이며 안산(지금의 시흥군) 사람이다.</p> <p>선조33년(1600)에 태어나 서원(書員)으로 교수를 지냈다. 산수(山水)화와 인물을 잘 그렸으며 사람됨이 소박하여 농담을 잘 하는 또 술을 즐겨 수두(數斗)의 술을 마시는 까닭에 실컷 취해야 필치가 평화롭고 신운이 유통하였다 한다.</p> <p>일찌기 한 승려가 넓은 집을 갖고와서 저승에 관한 그림명사도(冥司圖)를 청하면서 세포 수십마를 예로 올리니 명국은 그 일부를 종에게 주면서 「술값에 충당하여 두어달 실컷 마시게 하라」하고 승려한테 「나의 흥이 날 때를 기다리라」하였다.</p> <p>하루는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후 집을 뼈놓고 한참동안 바라보다 일필로 그려대니 전우(殿宇)와 귀치와 괴물의 행색이 너울거리 무서운 기운이 돋고, 깔려 죽은 자들을 전부 승려로 만들 어 놓으니 승려가 놀라서 「어허 공은 어찌하여 남의 큰 일을 그르치려 하는가」하니 명국은 웃으며 「너희들의 일생악사가 바로 혹세무인이니 지옥에 들어갈 놈이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겠느냐」하였다.</p> <p>승려가 꾸짖으며 「이것은 불살라 버리고 집이나 돌려달라」하니 명국이 웃고 「너희들이 완품을 갖고 싶거든 술을 더 사오너라, 그러면 고쳐 주겠다」고 하니 승려가 술을 사왔다.</p>

인명	생애 및 사적
	<p>명국은 한잔 또 얼큰히 마시고 술이 취한채 그림을 다시 그리니 머리깎은 승려는 머리를 낫게하고 수염이 없는 자는 수염이 그리고 납의는 채색을 하니 그 전의 흔적은 볼 수 없게 되었다.</p> <p>승려가 감탄하여 「공은 진실로 천하의 신필이외다」 하여 절을 하고 떠났다하는 일설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 그림이 보존되어 사문의 절보(沙門의 絶寶)라고 이른다.</p> <p>유작으로는 관폭도(觀瀑圖), 투기도(鬪基圖), 달마도(達磨圖) 2점 등이 있다.</p>
2. 김은부 (金殷傅)	<p>? ~ 1017 (현종 8) 고려 현종의 장인</p> <p>안산현(지금의 시흥군) 사람으로 현종초 공주 절도사로 있을 때 거란의 침입을 피하여 왕이 공주에 당으니 김은부가 예를 갖추어 극진한 영접을 하였고 거란병이 물러가고 왕이 파산역에서 돌아올 때에 딸을 바쳐 현종의 원성(元成) 왕후가 되었다.</p> <p>원혜, 원형 두 황후도 모두 그의 딸이다.</p> <p>그후에 형부시랑이 되었고 거란에 사신으로도 다녀왔으며, 지중추사 금부상서로 승진하고 그 후에는 벼슬이 중추사상에 이르렀다.</p> <p>그가 죽은 뒤 왕후의 인연으로 창국공신의 호와 안산군 개국후(安山君 開國侯) 등의 여러 벼슬을 받았으며 그의 처도 안산군 대부인으로 피봉되었다.</p>

인명	생애 및 사적
3. 김유 (金柔)	<p>이조 효종 4년(1653년)~숙종 45년(1719년)</p> <p>김유는 이조숙종때의 문관으로 자는 사직(士直)이며 호는 겸제(儉齋)로써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p> <p>관찰사 징(登)의 아들로서 남계(南浮) 박세체(朴世采)의 제자로 학문에 조예가 깊어 스승 박세체가 그의 후계자로 정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도 그를 매우 아끼었다 한다.</p> <p>1674년 예론(禮論)으로 박세체 송시열이 처벌되자 과거를 포기하고 이천(利川)에 숨어서 살았으나 숙종조에 들어가 사마시(司馬武)를 거쳐 1699년(숙종 25년) 문과에 급제하여 찬수랑(纂修郎)이 되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하고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부제학, 이조참판, 대제학에 이르렀으며 문장에 능하고 학문에 연구가 깊어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후에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p> <p>그의 저서로는 소학집주(小學集註) 증보주자외기(增補朱子外記) 존주록(尊周錄)의 문집(文集)이 있으며 64세때 그런 영정과 문집을 그의 후손인 의왕읍 하곡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영이 보관하고 있으며 그의 묘는 의왕읍 왕곡리에 있다.</p>
4. 이의양 (李義養)	<p>1768(영조 44)에 태어났다.</p> <p>이조 순조때의 화가로서 자는 이신(爾信)이며 호는 운제(雲齊) 또는 팔송관(八松觀)이라 하며 안산(지금의 시흥군) 사람이다.</p> <p>그림에 능하였다 하는데 고화비고(古畫備考)에 의하면 그의 작품인 산수화(山水畫)가 있는데 관(款)은 운재라 하였고 인(印)은 이의양, 그리고 술제(述齊)가 찬하였고 또 다른 화폭에는</p>

인명	생애 및 사적
	<p>화산(花山)이 찬(贊) 하였다고 한다.</p> <p>그의 작품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図譜) 제14권에 강남우후도(江南市後圖)가 수록되어 있다.</p>
5 이한철 (李漢喆)	<p>1808(순조 8)년에 태어났다.</p> <p>이조후기의 화가로서 운제 이의양의 아들이다. 호는 희원(希園)으로서 벼슬은 군수(郡守)를 지냈다.</p> <p>산수, 화조, 인물을 잘 그려 일본의 세키노가 그의 산수 인물의 필치를 격찬한 바 있다.</p> <p>그의 작품으로는 산수도, 인물도, 어해도 등이 전한다.</p>
6 이석훈 (李碩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5월 2일 황해도 장단에서 태어남 ○ 6.25 당시 월남하여 소래읍 대야리 99번지에서 정착 거주함. ○ 국궁의 화살제조로 71. 9. 13 인간문화재 47호 지정됨 ○ 속부 이근상(李根相)으로 부터 14세때 부터 화살촉의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47년간 종사하였으며 화살촉의 재료는 서해안 서산과 안면도 지방에서 신의주 대나무를 구입하여 3~4개월 건조후 화살제작. ○ 1980. 12. 11(62세) 사망 하였으며 부인 장태희 여사와 아들 2명이 있다.
7 윤영춘 (尹永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7. 9. 18 함경북도 북청군 북청읍 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남. ○ 1.4 후퇴시 월남하여 군포읍 당리 532번지에서 정착 거주함. ○ 북청사자놀음 앞머리 기능 보유자로 1967년 3월에 중요무형

인명	생애 및 사적
	<p>문화재 15호로 지정됨.</p> <p>○ 17세 때 부터 호기심을 갖고 북청군의 사자놀음 제일 실력자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꾸준히 연마하여 1958년 민속놀이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음.</p> <p>○ 1981. 6. 21에는 사단법인 함북 북청사자놀음 예술 보존회로부터 공로 상장을 추정함.</p> <p>○ 1981. 2. 15 사망 (74 세) 함.</p>
8. 신위 (申 紹)	<p>○ 영조 45년 (1769. 8. 11) ~ 현종 13년 (1847)</p> <p>○ 자하동 (紫霞洞=지금의 파천)에서 태어남.</p> <p>이조 말기의 학자로서 자는 한수 (漢叟)이고, 호는 자하 (紫霞)이며 본관은 평산이다. 침판 대승 (大升)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14세 때에 정조가 궁중으로 불러 들여서 크게 칭찬하고 사랑하였다 한다.</p> <p>1799년 문과에 급제 벼슬은 도승지를 거쳐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p> <p>당시 시 (詩), 서 (書)화 (画)의 삼절 (三絕)이라 이름하였고 조선 개국 이래 시작 (詩作)이 가장 많았으며 백년 이후의 시인들도 그를 작시법의 스승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필법 (筆法) 화품 (畫品)이 다 신경 (神境)에 이르러 그가 쓰고 그린 종이 조각하나라도 보배로 전하여 지고 있으며 그의 아들 명연 (命衍)은 호를 애춘 (讌春)이라 부르며 아버지의 유고를 수집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그 역시 삼절 (三絕)로 이름이 났었다.</p>

인명	생애 및 사적
9. 정세규 (鄭世規)	<p>1583(선조16) ~ 1661(현종 2)</p> <p>이조 인조때의 대신으로 자는 군칙(君則)이며 호는 동리(東里)라 하며 시호는 경헌(景憲)이며 본관은 동래로 써, 율(栗)의 아들이다. 1613년 사마시에 합격 금부도사의 벼슬을 지낸 후 안산군수(현재 시흥군수)가 되었다가 그후 병으로 사임하였다.</p> <p>1636년(인조14) 안산군수 당시에 치적을 쌓아 충청도 판찰사로 보직되었는데 호병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을 때 그는 도병을 이끌고 용인의 험천(險川)에 진주하였다가 호적의 급습을 받아 부상을 입고 안성을 거쳐 청주에 나가 항거를 계속하던 바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분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다.</p> <p>그후 왕의 간절한 부름을 받고 호조참의가 되었으며 전라감사 개성유수를 역임하고 공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p> <p>이후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가 7년 후 죽었다.</p>

4 - 2 유적유물

명칭	유래 및 연혁
1. 효령대군영정 (孝寧大君影幀)	<p>○ 지정 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81호</p> <p>○ 위치 : 과천면 문원리 연주암</p> <p>○ 소유자 : 연주암 주지</p> <p>이조 태종대왕의 두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영정이다. 삼베 위에다 원래의 색을 갖인 물감으로 그렸다. 영정의 크기는 가로 74cm에 세로가 102cm나 된다.</p> <p>영정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초상화이며, 현재 있는 효령대군의 영정은 오른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그리는 솜씨와 법이 매우 세밀하고 살아있는 것과 같이 뚜렷하고 섬세하고 정교하다. 특히, 그림이 보존되어 온 상태가 아무 손상이 없이 원래대로 양호하다. 750m나 되는 관악산 연주봉에 자리잡고 있는 연주암에 있는 것으로 이 그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그림을 대하면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훌륭한 솜씨의 그림이다.</p> <p>효령대군은 태종임금의 둘째 아들로서 이름은 보(補) 있었으나 처음에 부른 이름은 복호자의 호(祈)였다. 성년이 되어서의 이름은 착할 선(善)자에 아제비 숙(叔)을 쓴 선숙(善叔)이었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閔氏)였다. 효령대군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즐기고 또 한, 활쏘기에 능하여 아버지이신 태종대왕(李芳園)을 따라 항상 사냥터에 다녔으며, 아울러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다. 동생 세종(忠寧大君)과는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어 왕이 자기 집에 들르게 되면 밤이 깊도록 나라정치에 대해 전반적인 면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교환</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p>하였다.</p> <p>특히, 효령대군은 불교에 독실하고 공부를 많이하여 조정의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님들을 모아 불경(佛經)을 토론하고 강의 등을 하도록 하였다. 1464년(세종10년)에 원각사를 세우게 될 때, 총감독의 지위에 올라 이 공사를 친히 감독했고 「원각경(圓覺經)」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책을 펴냈으며 문장에도 능했다.</p> <p>아버지이신 태종이 셋째 왕자인 충령대군(후에 세종임금이 되신 분)을 장차 세자로 삼을 뜻을 눈치챈 첫째 왕자 양령대군이 왕궁을 빠져 나오려 하자 이를 동정한 둘째 왕자 효령대군도 함께 왕궁을 빠져 나와 발길 닿는대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그러던 중 며칠 만에 문득 발길을 멈춘 곳이 지금의 관악산이었다. 이 관악산에 있는 관악사라는 절에 들어가 도를 밟았으나 왕좌에의 집념과 미련 그리고, 동경의 정을 누를길이 없어 연주봉 꼭대기에 올라 왕궁이 잘 바라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대를 쌓아 그곳에서 왕궁을 바라보며, 한숨과 눈물을 지었다하여 이곳을 연주대라고 하였다고 전해오는 말도 있으며, 이러한 인연에서 지금의 연주암에 효령대군의 영정 한 폭이 있는 것 같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 부림현 (富林軒)	<p>○소유 : 면유</p> <p>○위치 : 과천면 관문리 107번지</p> <p>○시대 : 조선 정조</p> <p>조선 정조시 객사의 한 건물이었다고 하며 현재 과천면사무소 동측에 있는 진물이 원위치라고 하는데 정조의 어필인 부림현이 혼판으로 전하며 과천에 수립이 울창하여 부림현(富林軒)이라 썼다 한다.</p>
3 오이도폐총 (烏耳島貝塚)	<p>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산168 오이도 신포동(고줄이)</p> <p>지표하 80cm 지점에서 폐각층(貝殼層)이 나타나는데 폐각층의 두께는 1m 내외로 두터운 편이며 해안을 따라 길이 약 50m에 걸쳐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산 비탈에서도 폐각층이 나타나고 있다.</p> <p>지금은 경작지인데 약 500평 넓이의 밭에 모두 폐각이 섞여 있으며 주로 김해식 인문토기(金海式 印文土器)가 많이 출토하지만 흑도(黑陶)에 가까운 것도 출토된다.</p> <p>고줄이 일대 구능상(丘陵上)에서는 출문토기편(櫛文土器片)과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도 발견되지만 이것들이 쌓인 폐총은 발견할 수 없다.</p> <p>출문토기 폐총은 북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소규모였던 것 같다. 삽달리 일대의 북안(北岸)에도 폐총이 많이 보이지만 모두 삼국시대 초기것으로 보인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4.초지리폐총 (草芝里貝塚)	<p>시홍군 군자면 초지리</p> <p>초지리 별망 성지 (城址) 동쪽해안(남양연안)에 소규모의 김해기 (金海期)의 폐총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김해식 인문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폐총의 두께는 30cm내외이고 길이는 50m 정도로서 해발 1 m 내외의 저지대에 있으며 이 폐총은 78년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에서 발굴 하였으며 발견된 유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이다.</p>
5.군자리무문 토기유적 (無文土器 遺蹟)	<p>시홍군 군자면 군자리 (군자산)</p> <p>군자봉 서록 (君子峰 西麓)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표고 약 30m의 구릉상에 300여평의 평평한 곳에 무문토기의 후기에 속하는 흑도질 토기편이 출토되는데 무문토기 시대의 촌락지 (聚落址)로 추정된다.</p>
6.정왕리 선사유족 (先史遺蹟)	<p>시홍군 군자면 정왕 6리 옥터국민학교 주변일대에 출문토기 유적이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걷어낸 폐각층에서 출문토기 후기의 토기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p>
7.양상리 지석묘군 (支石墓群)	<p>시홍군 수암면 양상 2리</p> <p>북면한 구릉지를 따라 내려오다가 소천 (小川) 가까운 평지 도로변에 8基가 10여m 간격으로 군집하여 있는데 현상태는 무지석식으로 보이나 소형판석 (小形板石)들이 주위에 산재한 것을 보아 탁자식 (卓子式)도 있었던 것 같으며 그중 큰 것은 3.28m × 2.6m, 두께 1.2m CUP MARK가 2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3.1m × 2.6m, 두께 1m 등이다.</p> <p>한편 78년 9월 2일 경희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조사</p>

명 칭	유 래 및 연 혜
•	되었는바 특별한 유물의 출토는 없었으나 한반도 중부지방의 지석묘에 대한 형식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적이라 한다.
8. 거모리사지 (寺 址)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와 선부리의 접경(接境)지에 있으며 고려자기 파편이 산재하였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9. 대야리사지 (大也里寺址)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소래산) 소래산 동쪽 기슭에 있으며 석축(石築)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소정방이 전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10. 대야리마 애불 (大也里磨崖佛)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소래산 정상 동쪽 부근 병풍바위에 음각(陰刻) 되어 있으며 자연암의 균열과 인위적인 손상으로 마멸이 심한데 고려 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3m 대좌는 3.7m이다.
11. 백운사지 (白雲寺址)	시흥군 의왕읍 왕곡리 백운산 능선에 있는 현재의 절은 1970년 경에 세워진 것이라 하며 이곳은 청평김씨종중(青平金氏宗中)의 山이 연해 있는 곳으로 현재의 백운사도 종종에서 세웠다고 전한다. 원래의 백운사는 894년에 창건했었다고 전하는데 현백운사에서 3km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었다하나 기와의 파편이 몇개 산재할 뿐 잡초가 무성하다.
12. 원당사지 (元堂寺址)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山13 축대의 일부와 초석(礎石) 2개가 산재하며 근년(近年)에 쓴 3基의 묘가 있고 석불좌상 2구가 있는데 1구는 결가부좌(結跏趺坐)에 우수(右手)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이나 좌수(左手)

명 칭	유 래 및 연 혼
	<p>는 파손되어 있고 두부는 목이 부러져 올려 있으며 1구는 육계 (肉髻)가 있고 목아래 부분은 둥글게 돌출시켜 의문 (衣文)을 선각하였다.</p> <p>출토되는 기와 파편의 문양 (文樣)으로 보아 조선末까지 존재하다가 폐사가 된 것 같다.</p>
13. 수암사지 (秀岩寺址)	<p>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산4</p> <p>주위에 샘터가 하나 남아 있을 뿐 모두 경작지화 (耕作地化)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p>
14. 조인규사 당기 (趙仁規祠堂記)	<p>시흥군 파천면</p> <p>조인규 (고종14년 (1227) ~충열왕 34년 (1308)는 고려조 (朝)의 문신 (文臣)으로 차는 거록 본관은 평양인데 조정에 선발되어 몽고 어를 배우고 이름이 알려져 제교 (諸校)에 보직, 장군에 오른 뒤 충열왕 1년 (1275) 성절사로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비롯 전후 30여 차례나 원나라에 왕래했고, 승지, 삼사사 (三司使) 지도 침의사사 (知都僉議司事) 및 판군부사사 (判軍簿司事), 세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충열왕 24년 (1298) 충선왕이 즉위하자 사종 (司從) 시중 (侍中), 참지광정원사 (參知光政院事)가 되었으나 조비 (趙妃) 사건으로 안서에 장유 (杖流)되었다,</p> <p>1305년 석방되어 판도침의사사에 등용되어 1307년 평양군에 봉해지고 선충익대보조공신 (宣忠翊戴輔祚功臣)이 되었으며 시호 (謚號)는 정숙 (貞肅)인데 이 사당기는 이곡 (李穀)이 찬 (撰) 했고 옥수성 (玉守成)이 서 (書)했다고 대동금석록 (大東金石錄)에 있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15 허엽의 신도비 (許暉神道碑)	<p>시홍군 과천면</p> <p>허엽(중종12년(1517)~선조13년(1580))은 조선朝의 문신으로 자는 태희(太輝), 호는 초당(草堂)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인데 명종1년(154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1551년 부교리(副校理)가 되고 1553년 장령(掌令)으로 있을때 재물을 탐한 혐의로 파면 되었다가 1559년에는 필선(弼善)으로 기용되고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에 올랐으며 선조 1년(1568) 대사련(大司諫)에 올라 향약(鄉約)의 시행을 전의하였고 선조 8년(1575) 동, 서인의 당쟁이 시작될 때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며 부제학(副提學)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한직(閑職)에 전임되었다가 상주의 객관(客館)에서 죽었다.</p> <p>그는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 반포하고 삼강이倫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청백리(清白吏)에 록선(錄選)되고,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p> <p>허엽의 비(碑)는 남옹운(南應雲)이 전(篆)했고 노수진(盧守慎)이 글을 지었으며 전면은(前面) 한호(韓護)가 썼고 후면은 허잠(許箴)이 썼는데 비문이 조선금석총람에 있다.</p>
16 홍막금의묘 (洪莫金의墓)	<p>시홍군 군자면 원시리 산18</p> <p>홍막금은 조선 영조때의 인물이며 인조반정공신 홍명원(洪命元) 장군의 후손으로 1977년 5월 7일 반월공업도시 조성공사에 따라 분묘이장 작업시 길이 2m, 폭 70cm의 관이 나왔는데</p>

명 칭	유 래 및 연 혜
	<p>관재(棺材)는 두께가 15cm이며 옷칠을 했고 관 상면에 덮은 명정에 「절충장군 용호위부호군 남양홍씨지구」(折衷將軍 龍護衛副護軍 南陽洪氏之樞)의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관은 회(灰)로 밀폐되어 습기가 없었다 한다.</p>
17 홍명원의묘 (洪命元의墓)	<p>시홍군 군자면 성곡리</p> <p>홍명원 (선조 6년 (1573)~인조 1년 (1623))은 조선朝의 문신으로 자는 낙부(樂夫)이며 호는 해봉(海峰)인데 본관은 남양이다. 선조 30년 (159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겸열, 사서(司書)를 거쳐 현납(獻納)이 되어 권신(權臣)들을 탄핵하다가 함경도도사로 좌천되었고 예조정랑(禮曹正郎), 축주부사(竹州府使) 정주와 의주의 목사등을 역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부모봉양을 위해 광주목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표창을 받았다.</p> <p>광해군 초에는 명나라와의 긴장을 무마했고 후금(後金)의 위협에 강경론을 주장했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경기도 판찰사가 되어 반정후의 치안유지에 힘썼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는데 묘역(墓域)에는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했고 송준길(宋浚吉)이 쓴 비와 상석(床石), 동자석(童子石) 한쌍이 있고夫人 평윤씨(坡平尹氏)의 묘가 있다.</p>
18 이구의묘비 (李謬墓碑)	<p>시홍군 과천면</p> <p>이 구(태종 18년 (1418)~예종 1년 (1469))는 조선 세종의 네째 아들로 자는 현지(獻之)이다.</p> <p>어머니는 소현왕후 심씨인데 세종 19년 (1428) 임양대군에 봉해졌으며 그후 세종 12년 (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세조를 보</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p>좌하여 조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잘 가려 세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시호(謚號)는 정간(貞簡)이다.</p> <p>이 묘비는 안평대군의 글씨이다.</p>
19 이염의신도비 (李琰의신도비)	<p>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군자산)</p> <p>영홍대군 이염은 조선 세종의 여덟째 아들로 소현왕후 심씨의 소생인데 영홍대군으로 봉해졌으며 그림과 글씨에 능하고 음율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이 비(碑)는 안산(安山)에 있던 것을 광무 4년(1900) 9월 17일 이곳으로 이장했다고 하며 비문에 의하면 홍치(弘治) 11년(1498) 무오(戊午)년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오랜 풍화작용으로 글씨는 알아보기 어렵고 이수(螭首)를 갖추었으며 비대는 후대(後代)의 것으로 보인다.</p>
20 유석의신도비 (柳碩神道碑)	<p>시흥군 수암면 부곡 1리</p> <p>강원도 관찰사등을 역임한 유석, 호는 개산(皆山)이다.</p> <p>신도비는 조강(趙綱:호/瀧州)이 썼고 현목이 경오(1690) 추각립이라 쓰여 있으며 비신(碑身)은 높이 2.12m, 폭 96cm 두께 33cm이고 비대석(碑台石)과 가첨석(加檐石)이 있다.</p>
21 김약노의묘 (金若魯墓)	<p>김약노는 이조 영조때의 대신으로서 본관은 청풍이며 대제학 김유의 넷째 아들이다.</p> <p>1727년 (영조 3년) 문과에 급제하여 육조판서를 두루 거쳐 벼슬을 쌓아 1749년 (영조 25년)에 좌의정이 되었다.</p> <p>그의 아우(김유의 다섯째 아들)상노(尚魯)가 영의정 당시 세자인 사도세자를 세자의 장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모함하여 세자를 죽게 하였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p>정조대왕께서는 분주한 정사를 뒤로 미루고 선친의 묘가 있는 수원 화산 용능을 자주 찾아 참배하곤 하였다.</p> <p>그당시 용능 참배길은 과천을 경유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p> <p>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조대왕께서 용능을 참배하러 가던중 현재 갈현리 찬우물 마을에서 잠시 쉬어 목을 축이시고 주위 산천(山川)을 둘러보니 산기슭에 큰 묘가 있어 물어본 바 당시의 영의정 김상노의 형 김약노의 묘라 하니 정조대왕은 얼굴을 일그리며 즉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한다.</p> <p>그후 정조대왕은 대신에게 명하여 김약노의 무덤이 보기 싫으니 한양에서 안양을 거쳐 수원을 가는길을 새로 만들라 명하였으니 그후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다보니 부득이 안양에 만안교(萬安橋)를 설치케 되었다 한다.</p>
22 김치인의묘 (金致仁의墓)	<p>1716 (숙종42) ~ 1790 (정조 14년)</p> <p>이조 영조때의 재상으로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이다. 시호는 현숙(憲肅)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영의정 재로(在魯)의 아들이다.</p> <p>1748년 (영조24)에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p> <p>그의 아버지 재로(在魯)는 탕평(蕩平)의 논(論)으로 선비들에게 배척을 받았으나 치인은 선비들과도 잘 사귀어 칭송을 받았으며 소래읍 안현 1리 50번지에 묘와 비석이 있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3 유자신의묘 (柳自新의墓)	<p>1533 (중종28) ~ 1612 (광해군 4)</p> <p>이조 광해군의 장인 수릉관(守陵官), 잠(潛)의 아들로써 진사에 합격하여 태릉참봉(泰陵參奉)을 거쳐 형조참판을 지냈다.</p> <p>임진왜란때 동지충추부사가 되어 세자 광해군을 따라 강계에 갔으며 후에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다가 1595년(선조28)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p> <p>그후 한성부윤이 되었다가 1598년(선조31) 명나라 감군포 정사(監軍布政使)인 양조령(梁祖齡)의 부하를 구타한 사건으로 파면되었고 그후 다시 한성부윤에 이르렀다</p> <p>광해군이 즉위하자 관례에 따라 국구(國舅)로 문양(文陽)부원군에 피봉되었으며 아들 희분(希奮), 희발(希發), 희량(希亮)과 손자 충립(忠立)이 다 벼슬에 나갔으며 수암면 능곡 1리에 신도비와 묘가 있다</p>
24 이기조의묘 (李基祖의墓)	<p>이조 인조때의 문관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皓庵)으로 시호는 충간(忠簡)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이조판서 현영(顯英)의 아들로서 박동열(朴東說)에게 글을 배운 후 장성하였으며 이덕형(李德馨)의 손녀를 아내로 맞았으며 21세때 문과에 급제 승문원 박사(承文院 博士)로 있을 때 권간(權奸)에게 거역하다 파면되어 수원(水原)에 돌아갔다.</p> <p>인조반정으로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임명 도승지(都承旨)에 이르렀고 효종때 호조판서에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우의정 김육(金堉)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함경북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얼마 후 병을 얻어 사임하였으며 이후 김육에게 용서되어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임명되었으나 돌아오던 중 금화(金化)에서 객사하였다.</p>

명 칭	유 래 및 역 혁
	유고(遺稿)로는 3권이 있으며 묘는 과천에 있다.
25. 이복남의묘 (李福男의墓)	<p>이조 선조 때의 장군.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1597년(선조 30) 왜적의 재침 때 전라병사(全羅兵使)로 명나라의 부총병(副總兵), 양원(楊元)을 따라 남원을 수비하였다</p> <p>그해 8월에 왜적이 남원을 포위하매 조방장(助防將), 김경로(金敬老), 산성별장 신호(申浩) 등과 순국을 맹세하고 소수의 장병을 데리고 남문으로 성중에 들어가 분전하다가 전사하였으며 묘가 과천에 있다</p>
26 권건의 묘 (權健의墓)	<p>1457 (세조 3) ~ 1501 (연산군 1)</p> <p>이조 초기의 문인 자는 권강(权強), 시호는 충민(忠敏)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길창군 남(寧)의 아들로서 1476년(성종 7)에 급제 중추원 부사(中樞院 府事)를 지냈다.</p> <p>문장과 글씨에 능했으며 묘는 과천면 막계리에 있다.</p>
27.홍일동의묘 (洪逸童의墓)	<p>이조 초기의 명신으로 자는 일휴(日休)이며, 호는 마천(麻川)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절도사 상직(上直)의 아들이다.</p> <p>1442년(세종 24년) 문과에 급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상호군(上護軍)을 지냈다</p> <p>성격이 호탕하고 웃은 언제나 더러웠으며 술과 밥을 말로 먹고 시를 읊으며 풀피리를 잘 부는 것으로 유명했다.</p> <p>세조도 그를 보고 감탄하여 「돌아다니며 구경을 시키라」 하니 명을 받아 돌아 다니던 중 홍주(洪州-洪川)에 닿아 한없이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하여 그대로 죽었다하여 묘가 과천에 있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혁
28. 고잔리태봉 (古殘里胎峰)	<p>태봉은 수암면 고잔리에 위치한 것으로서 고려시대 왕자의 태를 묻은 곳이라 하여 태봉(胎峰)이라 전하여 오며 현재 태를 묻었던 혼적과 비를 세웠던 아랫 부분만 남아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산봉(山峰)에 비와 태를 담아 매장했던 솔과 같이 생긴 석조물(石造物)이 하나 있는데 이 비를 세우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부락(월피 1 리)내 부녀자들이 바람이 낸다는 전설이 있어 1940년경 이곳 주민들이 비의 윗부분만 산 아래로 굽어 700m 아래 앞논에 현재 묻혀 있다고 하며 태함은 도굴되었고 일부 매몰되어 있는데 드러난 부분의 크기는 대략 $1.32m \times 60cm$이고 비좌(碑座)는 $93cm \times 57cm \times 50cm$이다.</p>
29. 군자산성지 (君子山城址)	<p>시홍군 군자면 군자 1리 (군자산) 표고 187m의 독립봉인 군자봉 정상에 있으며 삼국시대 (三國時代)의 토기편(土器片)과 기와의 파편이 산재해 있고 정상부에는 후대에 지었던 성황당 자리가 있으며 조선때는 봉수대((峰燧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다. 삼국시대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 (要塞地)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는 약400m 높이는 약10m이다.</p>
30. 목내리성지 (木内里城址)	<p>시홍군 군자면 목내리 목내리와 초지리 사이의 표고 40.8m, 73m, 57.8m의 산능선과 목내리, 성곡리 사이의 표고 48m, 93.8m, 85.2m의 산능선 그리고 목내리 입구에 위치한(표고87m) 성안동이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산능선을 따라 축조한 것으로 현재 높이 2m 폭은 상부(上部) 2m내외 하부 5m내외의 토축성(土築城)이 있다.</p>

명 칭	유 래 및 연 혼
31. 성곡리성지 (城谷里城址)	<p>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해봉산) 유래미상으로 길이 약 20~30m 정도 토성(土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p>
32. 오정각 (五旌閣)	<p>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26 재료 : 목재, 크기 : 정면 3간, 측면 2간 시대 : 조선 제26대 고종 7년 (1870) 조선 제6대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던 충신 이조판서 김문기와 그의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김현석(金玄錫), 손 김충주(孫 金忠柱), 증손 김경남(金景南), 현손(玄孫) 김약전(金約前) 등 5대에 대한 정문(旌門)을 함께 봉안한 곳으로 오정각이라 칭한다. 고종 7년(1870)에 명정(命旌)하여 건립한 것인데 정면 3간, 측면 2간이며 초익공양식(初翼工樣式)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1968년 전체를 보수하고 1976년에 말끔히 단청(丹青)하였으며 1981년에 시흥군에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금령김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p>
33. 수암리관아지 (秀岩里官衙址)	<p>수암면 수암리에 있었던 건물로서 이조시대 관아로 사용되었던 목조건물이 거의 붕괴되어 1972년 10월경에 헐었다고 하며 그 목재의 일부는 안산국민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현대 초석(礎石)이 횡(橫)으로 10개가 (22.5m) 종(從)으로 4개가 (7.7m) 있으며 그 주위에 기단(基壇) 장대석(長台石)이 돌려있다.</p>
34. 미륵입상 (彌勒立像)	<p>○위치 : 파천면 문원리 山 117 ○소유 : 보광사 ○크기 : 2.1M × 41cm</p>

명 칭	유 래 및 연 혼
	<p>얼굴, 목, 발 부분등의 형태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조각되어 있어 미륵상을 조각하다 미완성 된 것으로 추측되며 갓(冠)이 주위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은 보광사에 있다.</p>
35. 정계사사적비 (淸溪寺事蹟碑)	<p>○소재지 : 시홍군 의왕읍 청계리 산 11</p> <p>○관리자 : 청계사 주지 (住持)</p> <p>○재료 : 화강암</p> <p>○크기 : 신고 1.74m, 폭 92cm, 후 26cm</p> <p>○시대 : 조선 제19대 숙종 15년 (1689)</p> <p>현재 사적기는 없으나 석비(石碑)가 남아있어 청계사의 내력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p> <p>고려시대 중엽 제26대 충선왕 때에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청계사에 사적비 2基가 있다.</p> <p>그중에 하나는 숭정기원후 기사년(崇禎紀元後己巳年)에 조성되었다는 비문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알 수가 없다.</p> <p>비문에는 「청계사사적비 청계사즉 고려시중 조정숙 공망별서 토야공휘인규자거진평양부상 원군인야 모토군 대인이씨 봉일입회 기이…승천기원후 기사(1689) 6월 일(淸溪寺事蹟碑 淸溪寺郎高麗侍中趙貞肅公亡別墅土也公諱仁規字去塵平壤府祥原群人也母土郡大人李氏夢日入懷已而…崇禎紀元後己巳(1689)6月 日)」라 쓰여 있는데 비신(碑身)의 높이는 1.68M이고 폭 62cm 육개석(屋蓋石)은 115cm×34cm이다.</p>
36. 문원리 삼총석탑	<p>○위치 : 과천면 문원리 75</p> <p>○소유 : 배차손</p> <p>○크기 : 1.65m</p>